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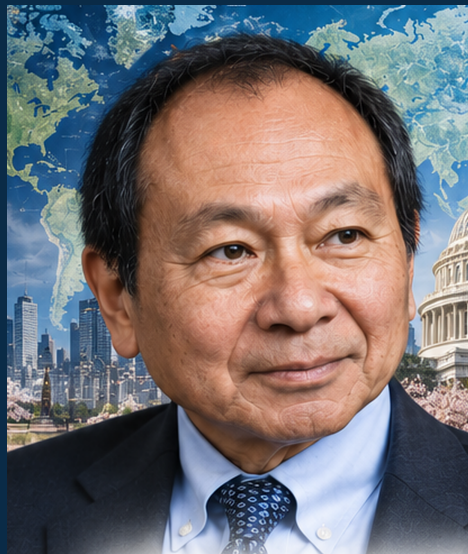
FINAL COPYEDITED ARCHIVE & PUBLICATION MASTER EDITION

프랜시스 후쿠야마

Francis Fukuyama

역사 · 국가 · 자유민주주의 · 인정 · 정치질서 · 정체성

A Comprehensive Reconstruction of History, Political Order, Recognition, and Liberal Democracy



작성자: 코리아베스트 <https://koreabest.org>

작성자: The American Newspaper <https://americannewspaper.org>

Research cutoff: 2026년 9월 6일

Graduate-level research report · Primary-source centered · Comparative and critical analysis

판권·편집 노트

이 문서는 기존 22페이지 요약판을 단순히 증보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제시한 56개 연구항목을 다시 설계하여 원전 중심의 장문 연구보고서로 확장한 판이다. 사실, 후쿠야마 자신의 주장, 비판자들의 주장, 본 보고서의 종합평가를 가능한 한 구분하였고, 1989년의 초기 논지와 2010년대 이후의 정치발전론, 2018년 이후의 정체성·자유주의론을 서로 다른 지적 단계로 취급한다.

인용과 서지에서 책의 페이지는 판본별 차이가 큰 경우 장(chapter)이나 논문의 고정 페이지 범위를 우선한다. 원문 직접 인용은 저작권상 필요한 최소 길이로 제한하며, 중요한 개념은 영어 원어를 병기한다. 2026년의 민주주의 상황이나 후쿠야마의 최신 입장처럼 시점에 민감한 사실은 연구마감일 현재의 Stanford, Freedom House, V-Dem, Reuters 등 공개자료를 사용하였다. Stanford는 2026년 9월 현재 후쿠야마를 Olivier Nomellini Senior Fellow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의 회고록 *In the Realm of the Last Man*을 2026년 9월 출간작으로 안내한다.¹

이미지 고지. 본문에 사용된 후쿠야마 관련 초상·상징 이미지는 연구보고서용 AI 생성 일러스트레이션이며 보도사진이나 역사기록 사진이 아니다. 표지 이미지는 AI-generated editorial illustration이며 실제 사진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분석적 도식은 본 보고서를 위해 별도로 제작하였다. 전자배포용 PDF는 구조 태그를 포함하지만 외부 PDF/UA 적합성 인증을 주장하지 않는다.

¹Stanford FSI, “Francis Fukuyama,” 2026; Stanford, *In the Realm of the Last Man: A Memoir*, <https://fukuyama.people.stanford.edu/books-and-monographs/realm-last-man-memoir>.

한 페이지 핵심 요약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전체 지적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압축할 수 있다. 인간의 인정 욕구와 근대화는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한 보편적 정당성의 후보로 만들지만, 자유롭고 안정적인 정치질서가 실제로 성립하고 유지되려면 국가역량(**state capacity**), 법치(**rule of law**), 정치적 책임성(**accountability**)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성공한 제도도 경직성·재가산화·엘리트 포획·정체성 갈등 때문에 쇠퇴할 수 있다.

1989년 「The End of History?」와 1992년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에서 “History”는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방향성을 가진 보편사(**Universal History**)다. 핵심 명제는 전쟁이나 사건이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파시즘과 공산주의 같은 체계적 경쟁 이념을 넘어 가장 강한 보편적 정당성 주장을 획득했다는 것이다. 철학적 엔진은 Hegel과 Alexandre Kojève의 recognition이며, 정치심리적 엔진은 Plato에서 가져온 *thymos*다. 1992년 책은 동시에 *Last Man*과 *megalothymia*를 통해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 뒤에도 명예·우월성·투쟁의 욕구가 불안정을 낳을 수 있음을 경고했다.²

2000년대 이후 연구의 중심은 “어떤 체제가 최종적으로 정당한가?”에서 “그 체제는 어떻게 실제 제도로 만들어지고 유지되는가?”로 이동한다. *State-Building*과 정치질서 2부작은 좋은 정치질서를 **State + Rule of Law + Accountability**의 결합으로 파악한다. 국가는 질서와 공공재를 공급할 집행능력을 가져야 하고, 법치는 권력의 자의성을 제약하며, 책임성은 통치자가 공동체의 이해에 반응하도록 만든다.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의 핵심은 이 균형이 영구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비인격적 관료제도 사적 네트워크에 포획될 수 있고, 과도한 veto points와 이해집단 조직화는 민주적 제약을 정치적 마비로 바꿀 수 있다.³

2018년 *Identity*는 초기 recognition을 현대 포퓰리즘과 정체성 갈등의 언어로 되돌린다. 사람은 소득뿐 아니라 존중·지위·존엄을 요구하며, “우리는 무시당했다”는 감각은 민족주의·종교적 동원·좌우 정체성 정치·반엘리트 포퓰리즘으로 조직될 수 있다. 2022년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는 자유주의를 민주주의·자본주의·신자유주의와 구별하고 동등한 개인의 존엄, 법치, 제한정부, 다원적 공존을 핵심으로 재정의한다. 따라서 후기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를 “승리한 제도”보다 계속 유지·수선해야 하는 정치질서로 본다.⁴

1989년 이후의 경험적 검증은 혼합적이다. 공산주의의 이념적 붕괴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언어는 초기 명제의 일부를 지지했지만,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역량, 러시아의 재권위주의화, 민주주의 후퇴, 대규모 전쟁의 지속은 초기의 낙관적 함의를 크게 약화시켰다. 가장 타당한 현재적 평가는 **End of History**를 사건의 종말이 아니라 정치적 정당성에 관한 제한된 보편사 가설로 읽고, 후쿠야마의 장기적 학문적 공헌은 **state capacity·rule of law·accountability·political decay·recognition**을 하나의 누적적 연구프로그램으로 연결한 데서 찾는 것이다.

²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3–18, esp. 4;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Parts III and V.

³Francis Fukuyama, *State-Building* (2004);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2011);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2014); “Why Is Democracy Performing So Poorly?” *Journal of Democracy* 26, no. 1 (2015): 11–20.

⁴Francis Fukuyama, *Identit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22).

Contents

판권·편집 노트	i
한 페이지 핵심 요약	ii
그림 목록	v
표 목록	vi
연구방법론과 자료설계	1
Executive Summary	3
1. 후쿠야마 생애와 지적 형성	5
2. 지적 계보	7
3. End of History	10
4. 인간 본성과 Recognition	15
5. 주요 저작별 분석 I	17
6. 정치발전론과 Political Decay	23
7. Identity와 Populism	26
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분	28
9. 미국·Trump·정치적 쇠퇴	31
10. 국제정치	32
11. Fukuyama vs Huntington	36
12. 후쿠야마와 민주주의·국가·제도 이론	38
13. 역사철학과 인간 본성	42
14. 주요 저작별 분석 II	45
15. 주요 저작 전체 지도와 사상 발전	47

16. 후쿠야마 사상의 변화와 비판	50
17. 1989-현재 경험적 검증	52
18. 핵심 개념사전	55
19. 후쿠야마 이론의 전체 구조·공헌·약점	61
20. 학문적 위상과 최종 종합평가	65
21. 필독 저작 및 연구 로드맵	69
부록 A. 56개 원래 연구항목 대응표	78
부록 B. 2026년 경험적 검증 자료와 방법론적 주의	81
부록 C. 1차 자료 중심 핵심 서지	82
부록 D. 주요 경쟁·비판 문헌	84
부록 E. 웹 기반 검증자료와 공식 페이지	86
부록 F. 인명·개념·저작 색인	87
편집 후 최종 결론	89

List of Figures

1	후쿠야마 전체 이론의 통합 구조	4
2	후쿠야마의 핵심 지적 계보 - 단순 계승이 아니라 기능적 결합	7
3	후쿠야마의 정치질서 삼각형	18
4	Political Decay의 핵심 메커니즘	24
5	후쿠야마의 인간 본성 삼분법	44
6	후쿠야마 사상의 7단계 발전	49

List of Tables

1	본 보고서의 네 단계 분석 프로토콜	1
2	후쿠야마의 주요 학문·정책 경력과 지적 효과	6
3	1992년 저서의 핵심 개념과 역할	10
4	Marx와 Fukuyama의 역사철학 비교	13
5	유럽 경로의 비교 - 후쿠야마식 단순화	22
6	후쿠야마식 자유주의와 인접 개념의 구별	29
7	후쿠야마와 주요 국제정치 접근법	35
8	State capacity 개념의 비교	39
9	후쿠야마 주요 저작의 연대순 지도	47
10	초기 주장과 후기 변화의 판정	50
11	1989-2026 주요 사건과 후쿠야마 논지의 관계	52
12	명제-관찰-경쟁설명-판정의 엄밀한 검증틀	53

연구방법론과 자료설계

이 판의 목적은 후쿠야마의 저작을 단순한 연대기나 찬반 논쟁으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시기의 명제들이 어떤 논리적 관계를 갖는지 검증 가능한 형태로 재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문은 (1) 1차 자료 확인, (2) 개념 재구성, (3) 비교이론 대조, (4) 경험적 검증의 네 단계로 진행한다. 이 순서를 따르는 이유는 후쿠야마에 대한 대중적 오해의 상당수가 1차 텍스트를 건너뛰어 후대의 비판이나 시사적 사건을 곧바로 그의 명제에 대입하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다.

Table 1: 본 보고서의 네 단계 분석 프로토콜

단계	핵심 질문	적용 방식
[사실]	후쿠야마가 언제, 어디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썼는가?	원전·공식 약력·서지·동시대 자료를 우선 확인
[후쿠야마의 주장]	그의 실제 명제와 인과메커니즘은 무엇인가?	개념의 정의, 텍스트의 논리, 저작 간 연결을 재구성
[비판자들의 주장]	경쟁이론은 어떤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가?	Hegel 연구, Huntington, realism, historical sociology, A&R 등과 대조
[종합평가]	무엇이 살아남고 무엇이 수정되어야 하는가?	경험적 사건과 최근 연구를 사용해 범위 조건을 명시

1차 자료와 판본 원칙

본 보고서는 후쿠야마의 저서와 학술논문을 1차 자료의 중심에 둔다. 1989년 논문은 *The National Interest* 원문을 기준으로 하고, 1992년 책은 Free Press 판의 장·페이지 구조를 기준으로 한다. 예컨대 recognition의 핵심 논의는 Part III “The Struggle for Recognition”(pp. 143-208), *thymos*의 집중 논의는 Chapter 17(pp. 181-191), lordship and bondage는 Chapter 18(pp. 192-198), universal and homogeneous state는 Chapter 19(pp. 199-208), Last Man 논의는 Part V(pp. 287-338)에 집중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직접 인용이나 특정 개념의 귀속은 가능한 경우 장과 페이지를 동시에 적는다.⁵

정치발전론에서는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와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를 중심축으로 삼고, 2012년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The Patterns of History,” 2013년 “What Is Governance?,” 2015년 “Why Is Democracy Performing So Poorly?”를 보조적 압축 텍스트로 사용한다. 특히 2015년 논문은 민주주의 전환보다 modern, impersonal state의 형성이 더 어렵다는 후기 후쿠야마의 핵심 문제 의식을 명시적으로 제시한다.⁶

⁵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Part III, 143-208; Part V, 287-338.

⁶Francis Fukuyama, “Why Is Democracy Performing So Poorly?” *Journal of Democracy* 26, no. 1 (January 2015): 11-20.

경험적 검증과 반증 가능성

“End of History가 맞았는가?”라는 질문은 검증대상을 분해하지 않으면 답할 수 없다. 이 판은 세 가지 경험명제를 구분한다. **H1** 자유민주주의가 경쟁적 정치이념보다 보편적 정당성의 우위를 갖는가. **H2** 경제·사회 근대화가 장기적으로 자유·책임성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키는가. **H3**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대국간 이념·군사경쟁을 약화시키는가. 각 사례는 “이론적 명제 → 관찰 가능한 함의 → 증거 → 경쟁 설명 → 잠정 판정” 순서로 분석한다.

이 방식은 특정 사건을 단순한 ‘반증’으로 선언하는 오류를 피한다. 예컨대 전쟁의 존재는 사건으로서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H1의 직접반증은 아니다. 반대로 중국이 장기간 높은 소득·혁신·국가역량·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넓은 모방력을 가진 권위주의 모델을 제공한다면 H1과 H2 모두에 훨씬 강한 도전이 된다. 이처럼 본 보고서는 어떤 미래관찰이 어떤 명제를 약화시키는지 가능한 한 명시한다.

사실·해석·평가의 분리와 정치적 중립성

Trump, 미국의 제도적 쇠퇴, 러시아·Ukraine, 중국 같은 사례에서는 후쿠야마 자신의 정치적 평가와 본 보고서의 분석을 구분한다. 후쿠야마가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을 비판했다는 사실은 그의 이론적 응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며, 본 보고서가 해당 평가를 정치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이 아니다. 현재 정치와 민주주의의 지표는 Freedom House와 V-Dem 등 공개자료의 방법론과 한계를 함께 제시하며, 독자적인 정당·후보 점수나 선거예측은 하지 않는다.

비교역사 자료와 범위조건

중국·인도·유럽의 역사사례는 후쿠야마의 설명과 현대 역사학의 세부 연구를 구분한다. Qin을 “modern state”의 선구로 부르는 것은 후쿠야마의 분석적 개념화이지, 고대 중국이 현대 국민국가와 동일했다는 사실명제가 아니다. Brahmanic dharma를 rule of law의 기원으로 읽는 것도 현대 헌정적 평등법치와의 동일성을 뜻하지 않는다. 따라서 각 사례에서는 후쿠야마가 사례를 이론 안에서 어떻게 사용하는가와 전문 역사학이 그 단순화를 어디까지 허용하는가를 별도의 질문으로 처리한다.

방법론적 기준. 이 보고서의 최종 평가는 “후쿠야마가 맞았는가/틀렸는가”라는 이분법보다, 어떤 명제가 어떤 범위조건에서 설명력을 갖고, 어떤 메커니즘이 후기 저작에서 수정되었으며, 어떤 경험적 결과가 이론을 추가로 좁혀야 하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Executive Summary

후쿠야마의 연구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은 그의 저작을 ‘한 번의 예언’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수정되는 하나의 거대 연구프로그램으로 읽는 것이다. 1989-1992년에는 자유민주주의가 왜 보편적 정당성의 강력한 종착점인가를 물었고, 1995년에는 신뢰와 사회자본이 시장경제와 사회조직을 어떻게 지탱하는지 물었으며, 2002년에는 자유주의적 인간관의 생물학적 기반이 기술로 변형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4년 이후에는 국가역량과 제도형성으로 중심축이 이동했고, 2011-2014년에는 국가·법치·책임성의 기원과 쇠퇴를 비교역사적으로 추적했다. 2018년 이후에는 인정욕구가 정체성·민족주의·포퓰리즘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분석했고, 2022년 이후에는 자유주의의 원리를 재정의하면서 ‘통치능력의 회복’까지 관심을 확장했다.

이 연구프로그램에는 일관된 인간론이 있다. 인간은 합리적 계산(reason)과 물질적 욕망(desire)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받고 싶어 하는 *thymos*를 갖는다. 자유민주주의는 동등한 시민권을 통해 *isothymia*를 제도화하지만, 더 큰 명예와 우월성을 요구하는 *megalothymia*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성공 이후에도 지루함, 지위불안, 민족주의, 카리스마적 지도자, 집단정체성의 정치에 노출된다.

후기사상의 핵심은 ‘좋은 정치질서’가 단일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국가는 집행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법치가 없으면 자의적 지배가 된다. 법치와 책임성이 강해도 국가가 무능하면 공공재를 공급하지 못한다. 민주적 책임성만 확대하고 행정능력을 만들지 못하면 기대와 성과 사이의 격차가 커진다. 후쿠야마가 민주주의 이론에 기여한 핵심은 바로 권력의 생성과 권력의 제약을 동시에 분석했다는 점이다.

본 보고서의 종합평가는 다음과 같다. 초기 *End of History*는 국제정치의 군사력, 권위주의 적응력, 역행의 빈도, 제국주의와 세계경제의 불평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사건이 사라진다”는 대중적 오독을 제거하고 실제 명제만 검토하면,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정당성이라는 핵심은 완전히 소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학문적으로 더 지속성이 높은 부분은 2011년 이후의 **Political Order**, 즉 state capacity, rule of law, accountability, political decay, patrimonialization의 분석틀이다. 후쿠야마를 오늘날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항상 맞았기 때문이 아니라, 역사철학·인간본성·국가형성·비교제도·자유주의의 위기를 하나의 연결된 문제로 사고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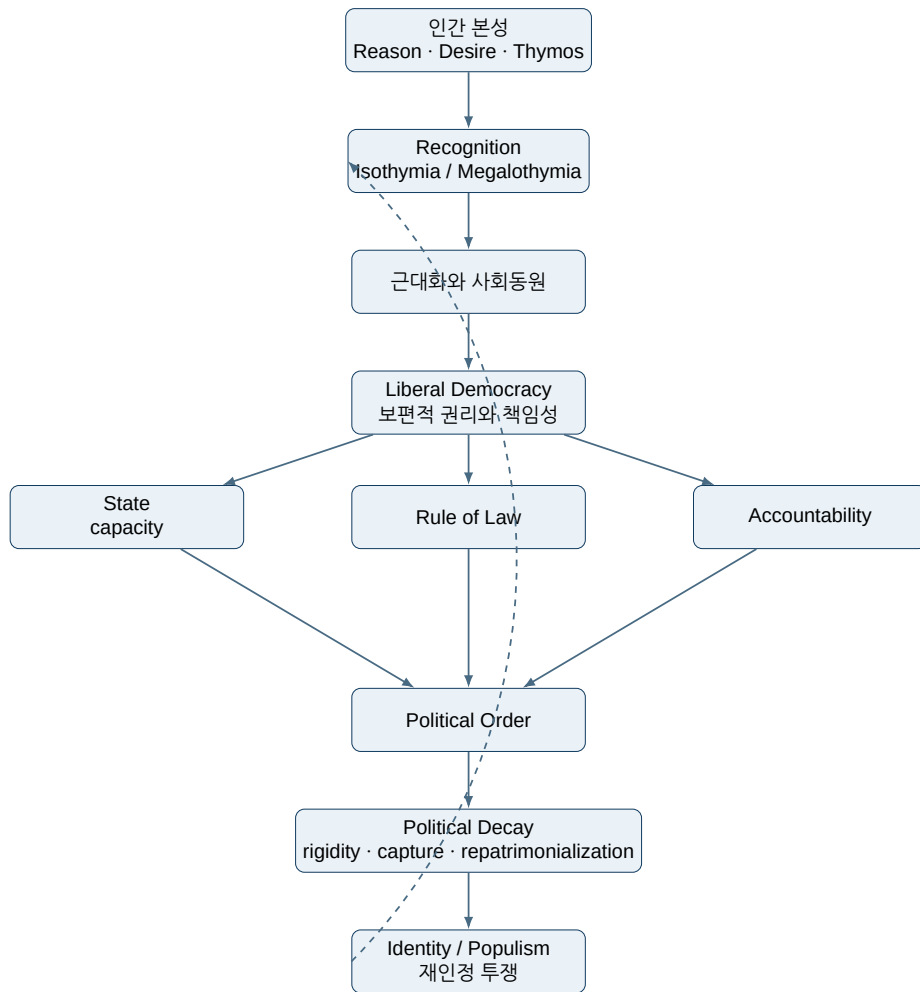


Figure 1: 후쿠야마 전체 이론의 통합 구조

Source: 본 보고서의 분석적 재구성. Based on Fukuyama (1992, 2011, 2014, 2018, 2022).

1. 후쿠야마 생애와 지적 형성

[RQ 01] 후쿠야마라는 인물: 생애·교육·정책세계

[사실] Francis Yoshihiro Fukuyama는 1952년 시카고에서 태어났고 Cornell University에서 Classics를 전공해 1974년 학사학위를, Harvard University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1981년에 받았다. Stanford의 공식 이력은 박사 연구분야를 Soviet foreign policy와 Middle Eastern politics로 적고 있으며, 이후 RAND Corporation과 미국 국무부 Policy Planning Staff를 오가며 정책연구와 학문을 병행했다고 기록한다.⁷ 이 경력은 후쿠야마가 처음부터 ‘철학자’로 출발했다기보다 냉전 전략·소련 연구·지역정치·정책분석을 훈련받은 정치학자였음을 보여준다.

가족적 배경도 중요하지만 결정론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의 가족은 일본계 미국인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고, 2026년 회고록 소개는 친족의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 경험을 언급한다.⁸ 그러나 그의 사상을 ‘일본계 정체성’으로 환원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오히려 후쿠야마의 후기 자유주의론에서 핵심적인 것은 귀속적 정체성이 시민의 동등한 권리를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보편적 시민성이다.

Cornell에서 Allan Bloom과 접촉한 경험은 그의 철학적 어휘를 형성했다. Bloom을 통해 Plato, Nietzsche, Hegel, 고전 정치철학을 현대정치에 연결하는 방식에 익숙해졌고, 인간을 단순한 경제적 효용극대화자로 보지 않는 관점을 습득했다. Harvard에서는 Samuel P. Huntington과의 관계가 결정적이었다. Huntington이 1968년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에서 제기한 ‘근대화와 제도화의 불일치’ 문제는 수십 년 뒤 후쿠야마의 *Political Order* 2부작에 직접적으로 이어진다. Yale University Press의 2006년 재판에는 후쿠야마의 새 서문이 실려 있으며, 출판사는 그가 Huntington의 업적과 지속적 중요성을 평가한다고 명시한다.⁹

RAND와 국무부 경험은 두 가지 효과를 낳았다. 첫째, 체제의 정당성과 별개로 ‘국가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보게 했다. 둘째, 냉전의 종결을 추상적 철학 문제가 아니라 소련의 정책·경제·이념적 약화라는 경험적 변동으로 관찰하게 했다. 1989년 논문이 Hegel과 Kojève를 인용하면서도 소련·동유럽·중국의 현실정치를 촘촘히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종합평가] 후쿠야마의 지적 형성을 가장 정확히 요약하면 고전 정치철학의 인간론 + Huntington식 정치발전론 + RAND/국무부의 냉전 정책분석의 교차점이다. 이 세 요소 가운데 하나만 제거하면 그의 전체 저작세계가 설명되지 않는다.

⁷Stanford CAP, Francis Fukuyama CV, https://cap.stanford.edu/profiles/viewCV?facultyId=45481&name=Francis_Fukuyama.

⁸Stanford, *In the Realm of the Last Man: A Memoir*, 2026.

⁹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2006 ed., foreword by Francis Fukuyama, Yale University Press.

Table 2: 후쿠야마의 주요 학문·정책 경력과 지적 효과

시기/기관	주요 경험	사상 형성에 대한 의미
Cornell	Classics, Allan Bloom	thymos, Nietzsche, 고전 정치철학
Harvard	정치학, Huntington	근대화·제도화·정치질서
RAND	안보·소련·정책연구	체제분석과 정책 현실주의
미 국무부	Policy Planning Staff	냉전 말기 이념·외교정책 관찰
SAIS	국제정치경제·개발	국가건설과 개발정책
Stanford	CDDRL/FSI	정치질서, 민주주의, 국가역량 연구

2. 지적 계보

[RQ 02] Plato에서 Hegel, Kojève, Nietzsche까지: 후쿠야마의 지적 계보

후쿠야마의 사상은 특정 철학자를 ‘충실히 계승’한 체계라기보다 서로 다른 전통을 기능별로 조합한 종합체다. Plato에게서는 영혼의 세 부분 가운데 *thymos*를, Aristotle에게서는 인간 본성과 정치공동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관점을, Hobbes에게서는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강제력의 문제를, Locke에게서는 개인권리와 제한정부를, Rousseau에게서는 자아와 존엄의 사회적 형성을, Kant에게서는 보편사와 자유의 진보 가능성을, Hegel에게서는 인정투쟁과 자유의 역사적 전개를 얻는다. Tocqueville은 민주적 평등이 낳는 사회심리와 시민사회를, Weber는 관료제·합리화·비인격적 국가를, Huntington은 근대화와 제도화 사이의 긴장을 제공한다.

그가 이 전통들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Hobbes와 Locke의 인간은 주로 생명·안전·재산을 보존하려는 욕망의 주체로 읽히지만, 후쿠야마는 그것만으로는 명예·민족주의·혁명·희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이때 Plato의 *thymos*와 Hegel의 *recognition*이 들어온다. 반대로 Hegel의 국가철학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다. 후쿠야마가 Hegel에게서 취하는 것은 역사 전체가 자유의 인식과 인정의 확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철학적 골격이지, Hegel의 법철학이나 국가론 전체가 아니다.

Nietzsche는 훨씬 복잡적이다. 후쿠야마는 Nietzsche를 자유민주주의의 적으로만 읽지 않는다. 오히려 Nietzsche는 자유민주주의가 성공한 뒤 발생하는 ‘성공의 위기’를 보여준다. 평등한 인정이 확립되면 위대함과 탁월성을 추구하는 인간은 만족할 것인가? 모든 위험과 투쟁을 제거한 사회가 인간을 *Last Man*으로 만들지 않는가? 이 문제는 후쿠야마가 자신의 초기 낙관론 안에 삽입한 자가비판 장치다.

[후쿠야마의 주장] 후쿠야마에게 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효율적인 제도라서 우월한 것이 아니다. 물질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장경제와 더불어, 인간이 동등한 존엄을 인정받고자 하는 요구를 제도적으로 수용한다는 점에서 역사철학적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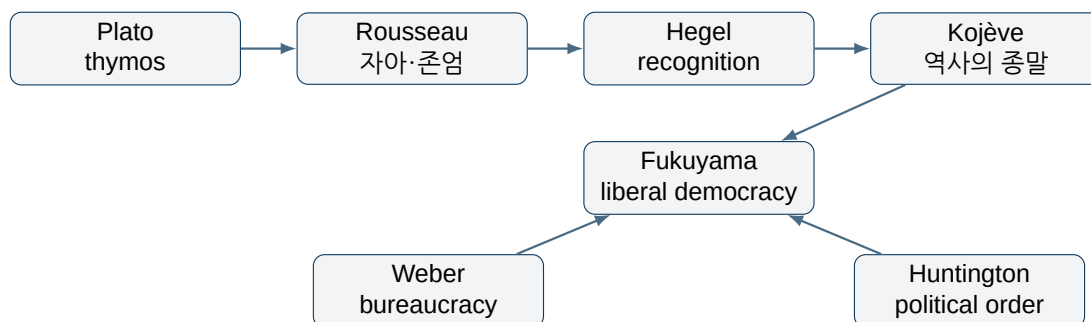


Figure 2: 후쿠야마의 핵심 지적 계보 - 단순 계승이 아니라 기능적 결합

[종합평가] 사상사적으로 후쿠야마의 독창성은 새로운 철학적 범주를 발명한 데 있다기보다, 고전적 인정이론을 냉전종식·근대화·비교정치·국가형성의 경험적 문제에 결합한 데 있다. 따라서 그를 Hegel 주석가로 평가하면 약점이 커 보이지만, 정치발전의 거대 종합가로 평가하면 강점이 드러난다.

[RQ 03] 1989년 「The End of History?」의 등장: 냉전 말기의 지적 충격

1989년 논문은 소련 해체 이후의 사후 승리선언이 아니었다. *The National Interest* 여름호에 실린 시점은 베를린 장벽 붕괴 이전이며, 소련은 여전히 존속했다. 논문은 Gorbachev의 개혁, 동유럽 공산권의 정당성 약화, 중국의 시장화, 소비문화의 확산을 ‘자유주의의 관념적 승리’라는 하나의 패턴으로 묶었다.¹⁰

당시 지적 배경에는 여러 경쟁 논리가 있었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은 이념보다 국가와 권력의 지속성을 강조했고,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을 여전히 핵심으로 보았다. 근대화론은 경제발전이 사회·정치구조를 변화시킨다고 보았지만, 베트남전 이후 그 낙관론은 크게 약화되어 있었다. 민주적 평화론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평화 가능성을 논했지만 ‘정치체제의 최종형태’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후쿠야마가 논쟁을 폭발시킨 이유는 이 여러 논의를 Hegel-Kojève의 언어로 한꺼번에 재해석했기 때문이다. 그의 가장 유명한 문장은 다음과 같다.

“the end point of mankind’s ideological evolution”

이 표현은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이념적 진화의 종점을 의미했다. 그러나 제목 자체가 강한 수사적 효과를 갖기 때문에 많은 독자가 ‘역사의 사건성’과 ‘보편사의 방향성’을 혼동했다.

[사실] 1989년 논문은 *The National Interest* No. 16, pp. 3-18에 실렸고, 같은 호에 Allan Bloom, Pierre Hassner, Gertrude Himmelfarb, Irving Kristol, Daniel Patrick Moynihan, Stephen Sestanovich의 즉각적 논평이 뒤따랐다. 이는 글이 처음부터 논쟁적 개입으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준다.^a

^aJSTOR, *The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https://www.jstor.org/stable/i24023449>.

[비판자들의 주장] 초기 비판은 크게 세 종류였다. 첫째,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 불완전성을 무시한다는 비판. 둘째, 민족주의·종교·문명·권력정치의 지속성을 과소평가한다는 비판. 셋째, Hegel을 지나치게 Kojève적으로 단순화한다는 철학적 비판이다. 이 세 비판은 훗날 각각 민주주의 후퇴, Huntington의 문명론, Derrida의 해체적 비판으로 발전한다.

[종합평가] 논문의 역사적 중요성은 ‘정답을 맞췄는가’보다 냉전종식을 단순한 지정학적 사건이 아니라 정당성 체제의 변동으로 해석했다는 데 있다. 1989년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공산주의 체제의 이념적 붕괴를 비교적 일찍 포착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그 뒤의 30여 년을 자유주의의 안정적 확장으로 읽는 것은 경험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¹⁰Fukuyama,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16 (Summer 1989): 3-18.

3. End of History

[RQ 04]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책 전체 논리의 해부

1992년 책은 1989년 논문을 두 방향으로 확장한다. 하나는 근대 자연과학과 경제적 근대화라는 물질적 메커니즘이고, 다른 하나는 **recognition**과 **thymos**라는 비물질적 메커니즘이다. 경제발전만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설명하면 성공적인 권위주의 시장경제가 반례가 된다. 반대로 인정욕구만으로 설명하면 산업화·교육·도시화·정보확산이 왜 정치참여 요구와 연결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후쿠야마는 두 힘을 결합해 보편사의 방향성을 구성한다.

책의 첫 번째 운동은 자연과학의 누적성과 경제근대화다. 과학기술은 군사·생산·행정 능력을 높이고, 현대경제는 복잡한 분업과 교육받은 노동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를 전통적 신분질서에서 이동시키고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이동을 확대한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이를 민주주의의 충분조건으로 보지 않는다.

두 번째 운동은 인정투쟁이다. 인간은 단순히 더 많은 상품을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타인이 승인하기를 요구한다. 여기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은 시장경제가 아니라 동등한 시민으로서 보편적 인정(**universal recognition**)이다. 법 앞의 평등, 정치적 권리, 시민권은 **isothymia**의 제도화다.

세 번째 운동은 자기모순이다. 자유민주주의가 평등한 인정을 제공하더라도 **megalothymia**가 사라지지 않는다. 일부 인간은 더 큰 명예와 우월성, 위험, 영웅주의를 원한다. 동시에 Nietzsche의 *Last Man* 문제처럼 평등하고 풍요로운 사회가 인간을 지나치게 안락하고 비정치적으로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의 결론은 단선적 낙관론보다 훨씬 양가적이다.

[후쿠야마의 주장]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경제발전 → 민주주의”가 아니라 근대화의 방향성 + 인정욕구의 방향성 →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우위, 그리고 그 내부에 남은 **megalothymia**와 *Last Man*의 긴장이다.

Table 3: 1992년 저서의 핵심 개념과 역할

개념	의미	이론적 기능
Universal History	방향성을 가진 인류사	체제변화에 장기적 패턴 부여
Recognition	존엄·가치의 사회적 승인	정치투쟁의 비경제적 동력
Thymos	자기 가치에 대한 spirited part	recognition의 심리적 기반
Isothymia	동등한 인정 욕구	민주적 평등과 권리
Megalothymia	우월한 인정 욕구	영웅주의·권위주의·갈등의 가능성
Last Man	안락과 안전에 만족한 인간	자유민주주의 성공의 내부비판

[RQ 05] ‘역사의 종말’의 정확한 의미: 네 가지 History 구분

“역사가 끝났다”는 표현을 정확히 평가하려면 먼저 *history*라는 단어의 층위를 분리해야 한다. 첫째는 전쟁·선거·혁명·기술변화 같은 사건으로서의 역사(**history as events**)다. 둘째는 사회가 시간 속에서 변화하는 역사과정(**historical process**)이다. 셋째는 인류 전체의 변화가 특정 방향을 갖는다고 보는 보편사(**Universal History**)다. 넷째는 정치체제와 정당성 원리의 경쟁이 특정 형태로 수렴하는 이념적 진화(**ideological evolution**)다.

후쿠야마의 ‘End’는 주로 세 번째와 네 번째 차원에 속한다. 그는 대규모 사건이 중단된다고 주장하지 않았고, 1989년 논문 말미에서도 post-historical world에 갈등이 남을 수 있음을 인정했다. 또한 제3세계의 많은 지역이 “history” 안에 남아 있을 것이라고 썼다. 즉 종말은 시간의 정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보편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체계적 이념 대안이 사라진다는 명제다.

이 구분은 반증 문제를 바꾼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념적 종말론을 직접 반박할 수 없다. 반면 중국의 권위주의적 국가자본주의가 장기간 높은 성과와 국제적 모방력을 확보하여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매력적인 보편적 대안으로 자리잡는다면 그것은 훨씬 직접적인 도전이다. 즉 사건의 발생 여부보다 대안 체제의 정당성·보편성·지속가능성이 검증의 핵심이다.

[종합평가] 대중적 오해를 교정한 뒤에도 이론은 비판에서 자유롭지 않다. ‘최종 정당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렵고,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불평등·폭력·배제를 보일 때 이상형과 현실형을 분리하는 방식이 이론을 반증 불가능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 따라서 End of History는 예측모형이라기보다 규범적·역사사회학적 가설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RQ 06] Hegel과 Kojève: Recognition에서 ‘보편적·동질적 국가’까지

Hegel의 역사철학에서 핵심은 자유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이 아니라 제도와 상호인정을 통해 객관화 된다는 점이다. 자아는 혼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확증할 수 없고 타자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흔히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으로 요약되는 장면에서 인간은 생물학적 자기보존을 넘어 자신의 자유와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이 투쟁은 노동·의식·제도의 변화를 통해 더 보편적인 자유의 질서를 향한다.

Alexandre Kojève는 1930년대 파리 강의를 통해 이 Hegel을 ‘인정투쟁의 역사’로 강하게 재해석했다. 그의 독법에서 역사는 욕망하는 인간이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과정, 즉 인정받고자 하는 투쟁이며, 최종적으로는 신분적 차별이 제거된 **universal and homogeneous state**에서 종결된다. 후쿠야마는 이 논리를 자유민주주의와 연결했다. 자유주의적 권리는 모든 개인을 동등한 법적 인격으로 인정하고, 민주주의는 그 개인들에게 정치적 지위를 부여한다.

그러나 이 연결은 그대로의 Hegel 계승이 아니다. Hegel의 국가와 시민사회, 가족, 윤리적 삶(Sittlichkeit)의 구조는 후쿠야마의 자유주의적 국가와 동일하지 않다. Kojève 역시 훨씬 아이러니하고 복합적인 ‘역사 이후’의 인간상을 갖고 있었다. 후쿠야마는 이 복잡성을 압축하여 냉전 이후의 자유민주주의에 적용했다. 바로 이 지점이 철학적 생산성과 동시에 취약성의 원천이다.

[비판자들의 주장] John O’Neill은 후쿠야마가 Hegel의 recognition을 시장적·개인주의적 인정으로 변형해 Hegel의 연합적·사회적 맥락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비판했다.¹¹ Derrida 역시 *Specters of Marx*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현실적 불완전성과 ‘종말’ 언어의 종말론적 구조를 문제 삼았다.

[종합평가] Hegel → Kojève → Fukuyama라는 선은 후쿠야마의 자기이해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Hegel 자체의 정확한 해석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학문적으로는 “Kojève적 Hegel을 현대 비교정치에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

¹¹ John O’Neill, “Hegel against Fukuyama: Associations, Markets and Recognition,” *Politics* 17, no. 3 (1997): 191-196.

[RQ 07] Marx와 Fukuyama: 두 개의 Universal History

Marx와 후쿠야마는 표면적으로 적대적이지만 구조적으로는 놀라운 유사성이 있다. 둘 다 역사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일정한 구조적 방향성을 갖는다고 본다. 둘 다 근대적 생산·경제관계가 정치질서를 변형한다고 보고,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 ‘중점’을 상정한다. 이 의미에서 “Marx: 계급투쟁 → 공산주의 / Fukuyama: 인정투쟁 + 근대화 → 자유민주주의”라는 비교는 유용하다.

그러나 동력과 중점의 성격은 다르다. Marx에게 계급관계와 생산양식의 모순은 역사변동의 중심이며, 국가와 법은 경제적·계급적 구조와 깊이 연결된다. 후쿠야마는 경제발전의 힘을 인정하지만 물질적 이해만으로는 명예, 민족주의, 종교, 자기희생을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서 *thymos*와 *recognition*이 들어온다. 또한 Marx의 공산주의가 소유관계의 근본적 변형을 목표로 하는 데 비해, 후쿠야마의 자유민주주의는 시장경제와 개인권리, 시민적 동등성을 결합한다.

두 이론의 취약점도 비슷하다. 결과를 미리 알고 과거를 ‘중점으로 가는 단계’로 배열할 위험이 있다. 후쿠야마가 중국·인도·유럽의 역사를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의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읽을 때도 이러한 목적론적 위험은 남는다. 다만 후기 후쿠야마는 정치적 쇠퇴와 경로의 다양성을 크게 강조함으로써 초기의 단선성을 완화한다.

Table 4: Marx와 Fukuyama의 역사철학 비교

	Marx	Fukuyama
핵심 동력	생산력·생산관계·계급투쟁	근대화 + recognition
인간 이해	물질적 관계·노동 중심	reason·desire·thymos
역사 중점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주요 위험	경제결정론·목적론	자유주의 목적론·근대화 편향
후기 수정	다양한 Marxist 전통	Political Decay로 비선형성 강화

[RQ 08] Nietzsche와 ‘최후의 인간’: 자유민주주의 성공의 역설

Nietzsche의 *Last Man*은 후쿠야마의 책 제목 후반부를 구성할 만큼 중요하다. 자유민주주의가 폭력적 신분투쟁을 끝내고 평등한 권리와 풍요를 제공할수록, 인간은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Nietzsche가 묻는 것은 그 결과가 ‘좋은 인간’인가 하는 문제다. 위험을 감수하고 위대한 목적을 추구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인간이 사라지고, 건강·소비·안전만을 중시하는 존재가 남는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의 위대함을 약화시킬 수 있다.

후쿠야마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문화비평이 아니다. *thymos*는 평등한 인정만 요구하지 않는다. *megalothymia*는 남보다 더 위대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다. 정치적으로 이는 지도자의 명예욕, 민족적 우월감, 종교적 영웅주의, 혁명적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이 욕구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면 인간 본성과 충돌하고, 반대로 무제한 허용하면 민주적 평등을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의 안정은 *megalothymia*를 안전한 제도적 통로로 전환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기업가정신, 스포츠, 과학, 예술, 민주적 경쟁, 공공봉사 등은 탁월성 욕구를 폭력적 지배보다 덜 위험한 방식으로 수용할 수 있다. 반대로 정치가 ‘승자만이 인간적 가치를 갖는다’는 형태로 변하면 인정투쟁이 다시 제로섬으로 전환된다.

[후쿠야마의 주장] 초기 후쿠야마의 가장 중요한 자가비판은 바로 Nietzsche다. 자유민주주의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성공해서 인간이 권태와 지위갈망 속에서 다시 투쟁을 찾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책 내부에 이미 포함시켰다.

4. 인간 본성과 Recognition

[RQ 09]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Lipset, Huntington, Barrington Moore, Acemoglu & Robinson 사이

후쿠야마의 초기 근대화론은 Seymour Martin Lipset의 “경제적으로 발전한 사회일수록 민주주의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고전적 명제와 연결된다. 산업화는 교육·도시화·중산층·정보접근을 확대하고, 이들은 정치참여와 권리 요구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경제성장이 민주주의를 자동으로 만들어낸다고 보지는 않는다. 중국은 이 자동성에 대한 가장 중요한 반례이며, 후기 저작으로 갈수록 그는 국가·법치·책임성이 서로 다른 역사적 경로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Huntington과의 차이는 더 흥미롭다. Huntington은 빠른 사회동원과 약한 제도화의 조합이 오히려 정치불안정을 낳을 수 있다고 보았다. 후쿠야마는 이 문제의식을 사실상 계승한다. *Is There a Proper Sequence in Democratic Transitions?*에서 그는 경제성장, 국가역량, 법치, 민주주의가 동일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으며 ‘stable democracy does not depend on a rigid set of preconditions’라고 썼다.¹²

Barrington Moore는 계급연합과 농업사회 구조를 통해 민주주의·파시즘·공산주의의 다양한 경로를 설명한다. 이는 후쿠야마보다 더 계급구조 중심적이고 비목적론적이다. Acemoglu와 Robinson은 경제·정치제도를 권력분배와 엘리트의 전략적 선택으로 분석하며, 단순한 소득 증가가 민주화를 초래한다는 견해에 회의적이다. 후쿠야마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제도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 국가역량과 recognition을 별도로 강조한다.

[종합평가] 후쿠야마의 성숙한 위치는 “부유해지면 민주화한다”가 아니라 경제적 근대화는 민주주의의 사회적 압력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국가·법치·책임성의 역사적 형성은 독립적이며 역행도 가능하다는 조건부 근대화론에 가깝다.

¹²Francis Fukuyama, “Is There a Proper Sequence in Democratic Transitions?” *Current History* 110, no. 739 (2011): 308–310, DOI: 10.1525/curh.2011.110.739.308.

[RQ 10] 후쿠야마 사상의 전환: End of History에서 Political Order로

후쿠야마의 지적 전환을 ‘초기 이론 철회’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더 적절한 표현은 질문의 이동이다. 1992년의 질문은 “어떤 정치체제가 가장 강한 보편적 정당성을 갖는가?”였다. 2004년 이후의 질문은 “그 체제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어떤 국가와 제도가 필요한가?”로 바뀐다. 전자는 정당성의 목적지(destination)를, 후자는 형성과 유지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다룬다.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은 이 전환을 촉진했다. 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군사행동과 기능하는 국가를 건설하는 작업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있었다. 후쿠야마는 *America at the Crossroads*에서 이라크전이 preventive war와 미국의 ‘benevolent hegemony’에 대한 과도한 신뢰, 그리고 민주적 정부를 외부에서 설계할 수 있다는 사회공학적 낙관론에 기초했다고 비판했다.¹³

또한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자유화와 자유주의를 동일시했던 시대의 가정을 약화시켰다. 2026년 Reuters 인터뷰에서 후쿠야마는 이라크전과 금융위기를 자신의 생각을 바꾸게 한 중요한 계기로 회고하며, 효과적인 관료제와 사회민주주의적 정책의 필요성을 더 크게 인정한다고 설명했다.¹⁴

[종합평가] 이 전환은 후쿠야마를 역사철학적 논쟁의 인물에서 비교정치·행정국가·정치발전의 이론가로 바꾸었다. 학문적으로 장기적 영향이 더 클 가능성이 있는 것은 오히려 이 후기 연구다.

¹³Francis Fukuyama,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Neoconservative Legacy* (Yale University Press, 2006/2007).

¹⁴Reuters, “Francis Fukuyama on changing your mind,” September 3, 2026.

5. 주요 저작별 분석 I

[RQ 11] *State-Building* (2004): 국가역량의 재발견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는 후쿠야마 후기 정치학의 출발점이다. 책의 기본 명제는 매우 단순하면서도 중요하다. 자유시장과 선거를 도입하는 것만으로 기능하는 정치 질서가 생기지 않는다. 법과 정책을 집행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걷고, 기본 공공재를 공급하고, 관료조직을 관리할 수 있는 국가역량(**state capacity**)이 필요하다. Cornell University Press의 책 소개가 요약하듯 후쿠야마는 **weak or failed states**가 현대 국제질서의 심각한 문제의 원천이라고 보고,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제도를 어떻게 이전·형성할 수 있는지 묻는다.¹⁵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scope of state functions**와 **strength of state institutions**다. **scope**는 국가가 교육·의료·산업정책·복지·국방 등 얼마나 넓은 업무영역을 담당하는가를 뜻한다. **strength**는 국가가 선택한 업무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집행하는가를 뜻한다. 이 둘을 혼동하면 “작은 정부가 강한 정부”라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기능 범위가 비교적 좁더라도 집행능력이 낮은 국가는 약한 국가이고, 복지국가처럼 범위가 넓어도 전문적 관료제와 법 집행력이 높으면 강한 국가일 수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는 이 문제를 현실적으로 보여줬다. 정권을 붕괴시키는 군사력은 짧은 시간에 투입할 수 있지만, 세금·경찰·법원·지방행정·정당체계·공공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장기적이고 사회적으로 내재된 과정이다. 외부국가가 제도설계 도면을 제공하더라도 현지의 이해관계·정당성·역사적 규범이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면 지속가능한 제도가 되지 않는다.

[후쿠야마의 주장] 후쿠야마의 후기 국가론은 “민주주의보다 국가가 더 중요하다”는 단순한 권위주의 옹호가 아니다. 핵심은 국가역량이 민주주의와 법치와는 별도의 독립적 차원이라는 것이다. 좋은 정치질서는 강한 집행력과 권력제약을 동시에 필요로 한다.

[종합평가] *State-Building*은 후쿠야마가 1990년대의 체제정당성 논의에서 21세기의 **governance** 문제로 옮겨가는 교량이다. 이 책 이후 “어떤 체제가 좋은가?”보다 “그 체제가 실제로 무엇을 수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그의 연구 중심에 들어온다.

¹⁵Francis Fukuyama,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JSTOR, <https://www.jstor.org/stable/10.7591/j.ctvrf8c1g>.

[RQ 12]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2011): 정치질서의 세 기둥

2011년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는 인간의 영장류 조상과 부족사회에서 출발해 프랑스혁명 직전까지 정치제도의 기원을 추적한다. Stanford의 공식 소개는 책의 비교구조를 명확히 요약한다. 중국에서 최초의 근대적 국가, 인도와 중동에서 법치의 기원, 유럽에서 정치적 책임성의 발전을 추적한다.¹⁶

후쿠야마에게 현대 자유민주주의는 세 가지 제도의 결합이다. 첫째 **State**는 일정 영토 안에서 강제력을 집중하고 법을 집행하며 공공재를 공급한다. 둘째 **Rule of Law**는 단순히 법률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통치자와 엘리트 역시 자신보다 상위의 규범에 구속된다는 원리다. 셋째 **Accountability**는 통치자가 공동체 구성원의 이해와 의사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제도이며, 현대 세계에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가 대표적 장치다.

이 세 제도는 역사적으로 서로 다른 순서로 형성될 수 있다. 중국은 강한 국가를 매우 일찍 만들었지만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이 약했다. 인도는 정치권력보다 오래된 종교·법규범이 통치자를 제한했지만 국가의 중앙집권적 역량은 중국보다 약했다. 유럽은 교회·귀족·도시·의회 등 국가 밖의 조직세력이 존재하면서 법과 책임성의 독특한 경로를 형성했다. 따라서 정치발전은 하나의 직선이 아니라 여러 제도가 다른 순서로 결합되는 **sequencing proble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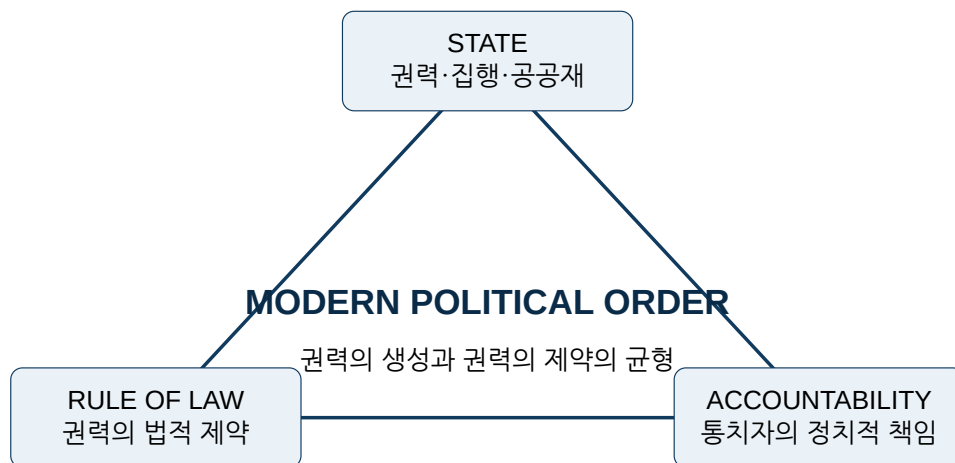


Figure 3: 후쿠야마의 정치질서 삼각형

Source: Analytical synthesis based on Fukuyama, *Origins of Political Order* (2011) and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2014).

[종합평가] 이 삼각형은 후쿠야마 후기 이론의 가장 재사용 가능한 분석도구다. 민주주의를 ‘선거의 유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국가역량과 법적 제약의 질을 함께 보게 하기 때문이다.

¹⁶Stanford,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https://fukuyama.people.stanford.edu/originsofpoliticalorder>.

[RQ 13] 중국의 국가형성: Qin과 Han, 비인격적 관료국가의 선구

후쿠야마가 중국을 세계 정치발전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서유럽보다 훨씬 이전에 중앙집중적이고 비교적 비인격적인 관료국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의 “Patterns of History”는 Qin 왕조 성립기인 기원전 221년 무렵 중국이 Weber적 의미의 근대국가 핵심 요소, 즉 impersonal recruitment, meritocratic bureaucracy, uniform administration을 발전시켰다고 주장한다.¹⁷

이 과정의 핵심은 전쟁과 귀족세력의 해체다. 전국시대의 군사경쟁은 중앙정부가 토지·세금·병력을 더 직접적으로 동원하도록 만들었다. 혈연귀족에 의존하는 봉건적 지배보다 중앙에서 임명한 관료와 표준화된 행정이 더 효율적이었다. Qin은 법가적 통치와 행정 표준화를 극단적으로 추진했고, Han은 보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관료국가를 정착시켰다. 이후 유교적 교육과 관료선발은 국가를 왕실의 사적 재산으로만 운영하기 어려운 행정전통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경로는 서유럽과 달랐다. 강한 국가가 일찍 형성되면서 국가 밖의 독립적 법적 권위나 조직세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황제의 권력은 도덕규범과 관료관행에 의해 제한될 수 있었지만, 통치자에게 법적으로 강제되는 **rule of law**와 현대적 **accountability**는 발전하지 못했다고 후쿠야마는 본다. 그는 유교를 통치자의 행동을 절제하는 moral accountability로 평가하지만, 정보와 승계의 문제 때문에 절차적 책임성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본다.¹⁸

[비판자들의 주장] 이 분석에 대한 비판은 두 방향이다. 첫째 Qin을 ‘최초의 modern state’라고 부르는 것이 현대적 개념을 고대 중국에 소급하는 시대착오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법과 정치제약을 ‘rule of law 부재’로 단순화하면 중국 법전통과 지방사회·관료규범의 복잡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종합평가] 그럼에도 중국 사례는 후쿠야마 이론의 중요한 장점을 보여준다. 국가역량과 민주주의를 동일한 역사과정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권위주의적이면서 행정적으로 강한 국가의 가능성을 이론 내부에서 설명한다. 이 점은 현대 중국 분석에도 직접 연결된다.

역사학적 검증. 중국 고대국가 연구는 전국시대의 전쟁, 군현제, 조세·병역의 직접 동원, 표준화가 중앙집권을 강화했다는 점에서는 후쿠야마와 접점이 있다. Mark Edward Lewis와 Yuri Pines의 연구는 Qin의 국가형성이 군사경쟁·행정혁신·귀족질서의 재편과 깊게 연결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 문헌은 Qin 관료제를 현대 Weberian bureaucracy와 동일시하기보다, 고대 제국의 특수한 제도적 논리로 분석한다. 따라서 후쿠야마의 “early modern state” 표현은 비교개념으로는 유용하지만 역사적 동일성의 주장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a

^aMark Edward Lewis, *The Early Chinese Empires: Qin and Ha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Yuri Pines, *The Everlasting Empire: The Political Culture of Ancient China and Its Imperial Legac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2).

[후쿠야마의 주장] 후쿠야마의 핵심 주장은 “중국이 민주주의 이전에 국가를 먼저 만들었다”는 sequencing에 있다. 이 주장의 강점은 현대 중국의 높은 조직·집행능력을 단순히 공산주의의 산물로 보지 않고 장기 역사경로와 연결한다는 점이다.

¹⁷Francis Fukuyama,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The Patterns of History,” *Journal of Democracy* 23, no. 1 (2012): 14-26, esp. 15-19.

¹⁸Francis Fukuyama,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The Patterns of History,” 15-19.

[비판자들의 주장] 반면 Victoria Tin-bor Hui처럼 전쟁과 국가형성의 다양한 가능성을 강조하는 연구는 중국 경로가 유럽과 본질적으로 다른 하나의 고정모형이었다는 설명을 경계하게 만든다. 또한 meritocracy라는 용어가 고대 선발제도와 현대 전문관료제를 지나치게 매끄럽게 연결할 위험도 있다.¹⁹

¹⁹Victoria Tin-bor Hui,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RQ 14] 인도의 법치: 정치권력보다 앞선 규범질서

후쿠야마는 인도를 강한 중앙국가의 사례가 아니라 통치자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법·종교규범의 사례로 사용한다. 고대 인도에서 Brahmin의 종교적 권위와 Kshatriya의 세속적 정치권력이 분리되고, dharma가 왕의 의지보다 오래되고 높은 규범으로 간주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 경우 법은 단순한 통치자의 명령이 아니라 통치자 역시 준수해야 할 사회질서로 이해된다.

이 논리는 후쿠야마가 rule of law를 **rule by law**와 구분하는 방식과 연결된다. rule by law에서는 국가가 법을 통치수단으로 사용한다. 법은 행정부의 명령과 크게 다르지 않다. rule of law에서는 권력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규범이 존재하고, 정치권력의 행사 자체가 그 규범에 의해 정당화되고 제한된다.

인도의 경로는 강점과 약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사회규범이 국가보다 강하면 자의적 권력을 억제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의 세금·치안·행정·공공재 제공 능력이 약해질 수도 있다. 후쿠야마의 삼각형에서 법적·사회적 제약이 강한 것이 언제나 높은 국가역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더 많은 제약 = 더 좋은 정부”라는 단순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종합평가] 인도 사례의 분석적 가치는 현대 헌법적 법치의 직접적 기원을 입증하는 데 있다기보다, 법의 규범적 권위가 국가보다 먼저 형성될 수 있다는 sequencing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다만 Brahmanic 규범을 현대적 평등법치와 동일시하면 사회적 위계와 배제의 문제를 놓칠 수 있다.

역사학적 검증. 고대 인도의 dharma 전통을 현대적 rule of law와 직접 등치하기는 어렵다. Patrick Olivelle의 Dharmasūtra·Dharmaśāstra 연구는 dharma가 왕권 이전의 규범질서라는 후쿠야마의 직관을 뒷받침하지만, 그 규범이 평등한 시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현대 헌법법과는 다른 신분·의례·종교적 질서를 포함했음을 보여준다.^a

^aPatrick Olivelle, *The Law Code of Manu*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Patrick Olivelle, *Dharmasūtras: The Law Codes of Ancient Ind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후쿠야마의 주장] 후쿠야마에게 인도의 기능은 “현대 법치가 고대 인도에서 완성되었다”는 역사명제가 아니라, 정치권력보다 독립된 규범권위가 먼저 생길 수 있다는 sequencing의 사례다.

[비판자들의 주장] 그러나 caste와 불평등의 규범화까지 고려하면, 규범의 자율성만으로 liberal rule of law를 측정할 수 없다. 후쿠야마의 개념은 권력제약을 잘 포착하지만 법 앞의 평등이라는 현대 자유주의의 추가 조건을 별도로 명시해야 한다.

[RQ 15] 유럽의 정치발전: England, France, Spain, Denmark 비교

유럽에서 후쿠야마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법·사회세력의 장기간 협상이다. 서유럽에서는 로마법과 교회법, 독립적 교회조직, 귀족, 도시, 상업세력, 신분의회가 중앙국가와 분리되어 존재했다. 국왕은 중국 황제보다 상대적으로 약했고, 사회의 조직된 집단들과 재정·전쟁·법적 권리를 두고 협상해야 했다.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법치와 책임성의 발전을 촉진했다.

England는 상대적으로 이른 중앙집권과 Common Law, Parliament의 발전이 결합한 사례다. 국가는 세금을 걷고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의회와 법원이라는 제약장치를 받아들였다. 이는 후쿠야마의 세 요소가 비교적 균형 있게 결합한 경로다.

France는 강한 중앙국가의 형성에 더 성공했지만 귀족·법원·길드·지역 특권을 완전히 합리화하지 못했고, 절대왕정 아래에서 다양한 특권과 매관제가 남았다. 후쿠야마는 이를 현대적 비인격성으로 가는 불완전한 경로로 본다. **Spain** 역시 중앙집권과 제국을 발전시켰지만, 사회와 국가의 관계·조세기반·지역제도·식민제국의 유산이 영국과 다른 결과를 낳았다.

Denmark는 역사적 세부 사례인 동시에 후쿠야마가 사용하는 규범적 은유다. “Getting to Denmark”는 부유하고 안정적이며 법치가 있고 부패가 낮고 민주적으로 책임지는 정치질서에 도달하는 문제를 뜻한다. 중요한 것은 Denmark가 ‘문화적으로 우수하다’는 주장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적 균형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Table 5: 유럽 경로의 비교 - 후쿠야마식 단순화

사례	국가형성	법·사회적 제약	책임성의 경로
England	비교적 이른 중앙화	Common Law·Parliament	협상형·의회형
France	강한 왕권·관료화	특권·법원·길드의 복합성	혁명 이전 제한적
Spain	왕조국가·제국	지역·신분적 다양성	불균등
Denmark	높은 현대 국가역량	강한 법치	높은 민주적 책임성의 이상형

비교역사 검증. 유럽 경로에 대해서는 Tilly의 전쟁-조세 국가형성론, Thomas Ertman의 관료제와 지방대표제 비교, Hendrik Spruyt의 국가·도시연맹·도시국가 경쟁모형이 후쿠야마의 설명을 보완한다. 이 문헌들은 영국의 성과가 단순히 “법치가 일찍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쟁재정, 대표기관, 토지·계급구조, 국제경쟁이 결합한 결과였음을 강조한다.^a

^a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Oxford: Blackwell, 1992); Thomas Ertman, *Birth of the Leviatha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Hendrik Spruyt,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4).

[후쿠야마의 주장] 후쿠야마의 독창성은 이 복잡한 유럽사를 “state strength와 legal/accountability constraints의 균형”이라는 비교변수로 압축한다는 데 있다.

[비판자들의 주장] 그 대가로 계급, 전쟁재정, 식민제국, 자본주의 세계경제처럼 Tilly·Ertman·historical sociology가 강조하는 인과요인이 배경으로 밀려난다. 따라서 그의 삼각형은 결과를 비교하는 데 강하지만 모든 역사적 인과를 대체하는 단일 설명은 아니다.

6. 정치발전론과 Political Decay

[RQ 16]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2014): 정치발전과 쇠퇴의 완성판

2014년 두 번째 권은 프랑스혁명부터 산업화, 식민주의, 민주화, 현대 미국에 이르는 정치발전의 장기사를 다룬다. 책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political development를 정부 교체가 아니라 정치제도의 시간에 따른 변화로 본다는 점이다. 현대 정치질서의 목표는 strong, impersonal, accountable institutions이며, 부패와 clientelism은 단순한 도덕적 일탈이 아니라 국가가 다시 사적 관계에 포획되는 제도적 현상이다.²⁰

여기서 **institutionalization**은 조직과 규칙이 개인의 일시적 선택을 넘어 지속성과 자율성을 갖는 상태를 의미한다. 강한 정당, 전문 관료제, 독립된 법원, 규칙화된 승계는 제도화를 높인다. 반대로 개인적 카리스마와 후원네트워크에 의존하는 정치는 제도적 지속성이 약하다.

Patrimonialism은 통치자가 국가를 자신의 가족·친족·사적 네트워크와 구별하지 않는 지배형태다. **Neopatrimonialism**은 현대적 헌법·관료조직의 외형이 존재해도 실제 자원배분과 공직이 사적 후원 관계에 의해 작동하는 상태를 가리킨다. 후쿠야마는 인간의 친족선호와 reciprocal altruism을 이러한 재가산화의 깊은 사회생물학적 배경으로 본다.

Clientelism은 정치적 지지와 개별적 혜택을 교환하는 구조이며, **corruption**은 공적 권한을 사적 이익에 사용하는 보다 넓은 범주다. 이들은 state capacity를 낮추고 법의 보편성을 훼손하며, 민주적 accountability가 집단적 공공재 대신 개별 후원거래로 변질되게 할 수 있다.

[종합평가] 이 책의 독창성은 정치발전의 목표를 민주주의 하나로 환원하지 않고, 비인격적 국가 + 법치 + 책임성의 동시 발전으로 보는 데 있다. 또한 발전 이후의 쇠퇴를 이론의 중심에 넣음으로써 초기 목적론을 상당 부분 교정한다.

²⁰Francis Fukuyama,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Farrar, Straus and Giroux, 2014); Stanford book page, <https://fukuyama.people.stanford.edu/politicalorderandpoliticaldecay>.

[RQ 17] Political Decay: 왜 성공한 제도도 무너지는가

후쿠야마의 political decay는 정권의 인기가 떨어지거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 현상과 다르다. 핵심은 제도가 변화한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적 제도가 다시 사적 이익에 포획되는 것이다. 두 메커니즘이 중심이다. 하나는 institutional rigidity, 다른 하나는 repatrimonialization이다.

Institutional rigidity는 과거에 성공했던 규칙이 환경이 변한 뒤에도 수정되지 않는 상태다. 제도는 안정성을 위해 쉽게 바뀌지 않아야 하지만, 바로 그 안정성이 장기적으로 부적응을 만들 수 있다. 산업화 이전의 규칙이 정보경제와 거대도시에 적용되거나, 과거의 권력분립 구조가 새로운 정책문제에서 지나치게 많은 veto point를 만들 수 있다.

Repatrimonialization은 비인격적인 공공제도가 친족·친구·후원자·경제엘리트의 네트워크에 다시 포획되는 과정이다. 로비와 이해집단 자체는 민주주의의 정상적 요소지만, 조직된 소수집단이 정보·자금·접근성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하면 공공정책이 넓은 사회보다 이미 조직된 집단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다. 이때 rent-seeking이 증가하고 국가의 자율성이 줄어든다.

Polarization은 decay의 원인이자 결과가 될 수 있다. 정당 간 신뢰가 붕괴하면 상대방에게 권한을 주지 않기 위해 거부권과 절차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제도적 마비가 정부성과를 악화시키면 다시 정치불신이 커진다. 이 악순환은 후쿠야마가 미국 정치에 적용한 분석과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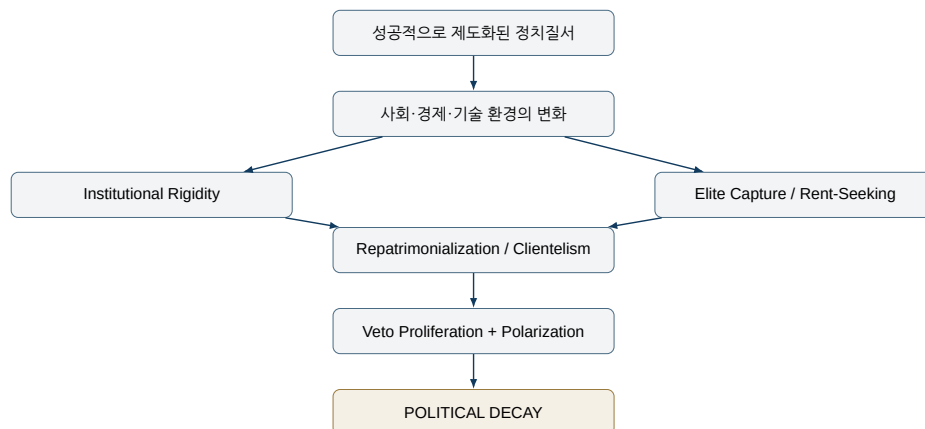


Figure 4: Political Decay의 핵심 메커니즘

Source: Author's analytical reconstruction based on Fukuyama,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2014), especially Parts III–IV.

[RQ 18] 미국 정치의 쇠퇴와 Vetocracy

후쿠야마의 미국 분석은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의 완성형으로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미국 헌정체제는 권력남용을 막기 위해 대통령·의회·법원·연방주의·행정절차·지방정부 등 여러 수준에 권한을 분산한다. 이 구조는 역사적으로 자유를 보호하는 강점이었지만, 현대의 복잡한 정책환경에서는 과도한 **veto points**를 만들어 집단행동을 방해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이를 **vetocracy**라고 불렀다.²¹

문제는 checks and balances 자체가 아니다. 어느 정도의 veto point는 소수자 권리를 보호하고 권력집중을 방지한다. 후쿠야마가 비판하는 것은 법원·의회·행정절차·로비·연방주의가 상호작용하면서 정책변경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태다. 이 경우 조직력이 강한 이해집단은 현상유지를 보호하기 쉬워지고, 넓게 분산된 일반 시민의 이익은 조직화되기 어렵다.

미국의 법원 중심성도 중요한 논점이다. 사회갈등을 입법·정당정치보다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경향이 커지면 정치적 협상은 사법적 권리주장으로 전환된다. 동시에 Congress의 양극화가 커지면 행정부는 행정명령과 규제기관에 더 의존하게 되고, 반대세력은 다시 법원에 의존한다. 이 과정은 국가역량과 법적 제약 사이의 균형을 어렵게 만든다.

2025-2026년 후쿠야마의 관심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state capacity**의 회복에 있다. Stanford의 2025년 연구와 2026년 글에서 그는 잘 작동하는 관료제가 충분한 전문성·자율성을 가져야 하며, 미국 정부가 주택·인프라 등에서 실제로 일을 수행하는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²

[종합평가] 후쿠야마의 미국론은 “더 많은 제약”과 “더 강한 행정부” 사이에서 한쪽을 택하는 단순론이 아니다. 핵심은 전문적·비인격적 행정능력을 확보하면서 법치와 민주적 책임성을 유지하는 설계다.

²¹Francis Fukuyama, “America in Decay: The Sources of Political Dysfunction,” *Foreign Affairs* 93, no. 5 (Sept./Oct. 2014): 5–26.

²²Stanford CDDRL, “Bureaucratic Autonomy and the Problem of Delegation,” April 3, 2025; Francis Fukuyama, “Why American Governments Can’t Get Things Done,” *Persuasion*, Feb. 18, 2026.

7. Identity와 Populism

[RQ 19] *Identity* (2018): 존엄, 인정, 원한의 정치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는 1992년의 recognition 개념을 21세기 정치에 다시 적용한다. Stanford의 공식 소개는 “Demand for recognition of one’s identity is a master concept”라고 요약한다.²³ 즉 경제적 이익만으로는 민족주의·포퓰리즘·종교적 동원·문화전쟁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고,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후쿠야마가 사용하는 **dignity**는 단순한 자존감이 아니다. 인간이 타인과 제도로부터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요구다. 이 요구가 보편적 시민권의 형태를 취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결합한다. 그러나 특정 국가·민족·종교·인종·성별 집단의 독자적 지위를 중심으로 조직될 때는 좁은 recognition이 보편적 recognition을 대체할 수 있다.

Resentment는 자신의 지위가 정당하게 인정되지 않았다는 감정이다. 경제적 쇠퇴가 중요한 경우에도 정치적 효과는 종종 지위의 언어로 나타난다. “내 소득이 줄었다”보다 “엘리트가 우리를 무시한다”, “우리 집단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다”, “우리 경험은 인정받지 못한다”는 감정이 더 강한 정치동원이 될 수 있다.

후쿠야마는 좌우의 identity politics를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는다. 역사적으로 억압받은 집단의 권리투쟁은 보편적 자유주의를 확장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의 기본단위가 개인의 보편적 권리보다 폐쇄적인 집단정체성으로 고정되고, 집단 간 인정이 제로섬 경쟁으로 변할 때 발생한다.

[종합평가] *Identity*는 *End of History*의 철회가 아니라 그 책의 *thymos* 논의를 확장한 것이다. 1992년의 recognition이 체제정당성의 철학적 원리였다면, 2018년의 recognition은 민주주의 내부의 갈등을 분석하는 경험적 변수가 된다.

²³Stanford, *Identity*, <https://fukuyama.people.stanford.edu/identity>.

[RQ 20]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2022): 자유주의의 재정의

후쿠야마가 2022년에 방어하는 자유주의는 ‘시장만능주의’와 동일하지 않다. Stanford의 책 소개에 따르면 그는 classical liberalism을 종교전쟁과 민족주의 갈등 이후 다양한 사회를 통치하기 위한 체제로 설명하며, 평등과 법치, 개인이 자신의 행복관을 추구할 권리를 핵심으로 둔다.²⁴

그는 자유주의가 오른쪽과 왼쪽에서 각각 과잉 확장되었다고 본다. 오른쪽에서는 **neoliberalism**이 경제적 자유를 거의 절대화하여 국가역량·사회적 안전망·공공재·공동체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 시장경쟁은 자유주의와 양립하지만 자유주의 그 자체가 아니다. 왼쪽에서는 일부 progressive identity politics가 보편적 개인의 권리보다 집단경험과 집단정체성을 정치의 기본단위로 만들면서 자유주의적 보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동시에 후쿠야마는 nationalism과 communitarian criticism의 문제제기를 전부 거부하지 않는다. 자유주의 사회도 공통된 시민정체성과 공동체적 연대를 필요로 한다. 문제는 그 정체성이 혈통·종교·인종처럼 배타적인 기준에 기초하느냐, 아니면 헌법·법·시민적 의무처럼 개방된 정치적 기준에 기초하느냐다. 이 점에서 그의 후기 자유주의는 **nation-state**를 필요로 하지만 **ethnonationalism**은 경계하는 **civic liberalism**에 가깝다.

[후쿠야마의 주장] 자유주의의 역할은 모든 사람이 같은 가치관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선(good)의 개념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 없이 공존할 수 있는 정치적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다.

[종합평가] 이 책은 후쿠야마가 1990년대의 ‘자유시장 + 민주주의’ 결합에서 상당히 멀어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시장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국가역량·사회적 보호·공공행정·시민적 연대를 자유주의적 질서의 조건으로 더 강하게 강조한다.

²⁴Stanford FSI,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May 10, 2022, <https://fsi.stanford.edu/publication/liberalism-and-its-discontents>.

8.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구분

[RQ 21] 후쿠야마의 자유주의: democracy, capitalism, neoliberalism과 무엇이 다른가

후쿠야마의 자유주의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liberalism**과 **democracy**를 분리해야 한다. Democracy는 누가 통치하는가, 즉 통치자가 국민에게 어떻게 책임지는가의 문제다. 선거·정치적 참여·다수의 선택이 중심이다. Liberalism은 통치자와 다수조차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와 법적 제한, 즉 권력을 어떻게 제약하는가의 문제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는 두 원리의 결합이지 동의어의 반복이 아니다.

Capitalism은 재산권과 시장교환, 기업조직을 통한 경제적 조정체계다.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는 긴밀히 결합했지만 논리적으로 동일하지 않다. 권위주의 국가도 시장경제를 운영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적 재분배와 복지국가를 수용할 수 있다. 이 구별은 중국의 부상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특히 중요해졌다.

Neoliberalism은 후쿠야마가 후기 저작에서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범주다. 시장경쟁과 규제완화, 민영화의 효율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모든 사회문제의 기본해법으로 일반화하면 국가가 공공재를 공급하고 불평등·외부효과를 조정하는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 Libertarianism은 개인의 선택과 재산권을 더 강하게 우선하여 국가의 역할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며, 후쿠야마의 후기 국가역량론과 상당한 긴장이 있다.

Progressivism과 social democracy는 자유주의와 부분적으로 겹친다. 사회민주주의는 개인권리와 민주정치를 유지하면서 조세·복지·노동정책을 통해 시장결과를 조정하므로 자유주의와 양립할 수 있다. Progressive politics 역시 시민권 확대의 역사에서는 자유주의를 강화했지만, 집단정체성이 보편적 시민권을 완전히 대체할 때 후쿠야마는 비판적이다. Conservatism 역시 법치·제도·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으나, 혈통적 민족주의나 개인권리의 축소와 결합하면 자유주의와 충돌한다.

Table 6: 후쿠야마식 자유주의와 인접 개념의 구별

개념	중심 질문	자유주의와의 관계
Democracy	누가 통치하는가	accountability의 원리
Capitalism	경제를 어떻게 조직하는가	역사적으로 결합, 논리적으로 독립
Neoliberalism	시장을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후기 후쿠야마가 과잉을 비판
Libertarianism	국가를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가	state capacity와 긴장 가능
Social democracy	시장과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자유주의와 양립 가능
Conservatism	전통·질서·공동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일부 공유, 배타적 민족주의와 충돌

[RQ 22]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초기 End of History를 약화시키는가, 보완하는가

21세기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는 하나의 원인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Populism**은 대표제와 중간기관을 ‘엘리트의 배신’으로 규정하고 지도자가 ‘진정한 국민’과 직접 연결된다고 주장하는 경향을 갖는다. **Nationalism**은 공통된 시민정체성을 만들 수 있지만, 국민을 혈통·종교·민족의 폐쇄적 범주로 정의하면 자유주의적 보편권과 충돌한다. **Authoritarianism**은 선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제약과 권력교체 가능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Polarization은 정책차이보다 상대집단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할 때 위험해진다. 상대방이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라 국가의 적이라고 인식되면, 선거 패배의 수용과 제도적 절제가 어려워진다. **Identity politics**는 존엄을 회복하는 긍정적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인정의 범위가 좁은 집단으로 분할되면 보편적 시민권의 언어가 약해진다.

Inequality는 초기 후쿠야마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다룬 변수다. 2012년 “The Future of History”에서 그는 중산층의 약화와 불평등이 자유민주주의의 사회적 기반을 훼손할 수 있다고 더 명시적으로 다뤘다.²⁵ 경제적 불안이 정치적 resentments와 결합하면 recognition politics가 강화된다.

Social media는 정보유통을 민주화했지만, 정당·언론·전문기관 같은 중간조직의 게이트키퍼를 약화시키고 정체성·분노·허위정보의 확산속도를 높일 수 있다. 후쿠야마가 Stanford의 Democracy and the Internet 관련 작업에 참여한 것은 이 문제와 연결된다.

[종합평가] 이 위기들은 1989년의 가장 낙관적인 독해를 약화시킨다. 그러나 후기 후쿠야마의 틀에서는 오히려 **political decay + recognition + state capacity**라는 보완이론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따라서 전체 연구프로그램은 초기 명제보다 훨씬 탄력적이 되었다.

²⁵Francis Fukuyama, “The Future of History: Can Liberal Democracy Survive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Foreign Affairs* 91, no. 1 (Jan./Feb. 2012): 53-61.

9. 미국·Trump·정치적 쇠퇴

[RQ 23] Trump 현상: 반증, recognition politics, political decay, populist nationalism

Donald Trump 현상을 후쿠야마 이론에 적용할 때 네 층위를 구분해야 한다. 첫째, Trump의 등장 자체가 End of History의 논리적 반증인가. 그렇지 않다. 초기 명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반자유주의 정치나 권위주의적 충동이 다시 나타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다만 선진 자유민주주의가 안정적으로 공고화될 것이라는 낙관적 함의를 약화시키는 강한 경험적 사례다.

둘째, **recognition politics**의 사례인가. 후쿠야마의 분석에서 포퓰리즘 지지의 일부는 단순한 소득 손실보다 지위상실과 문화적 무시에 대한 감각으로 설명된다. 특정 유권자들이 자신들이 국가의 문화적 중심에서 밀려났다고 느낄 때 “우리를 다시 존중하라”는 요구가 정치적 동원이 될 수 있다. 이 논리는 *Identity*의 핵심과 직접 연결된다.

셋째, **political decay**의 사례인가. 후쿠야마는 2014년 이전부터 미국의 이해집단 포획, *vetocracy*, 행정부와 입법부의 불균형, 관료제의 문제를 decay의 언어로 분석했다. 2016년 이후에는 개인화된 권력, 제도적 규범의 약화, 행정국가와 법치의 긴장을 이 틀 안에서 논했다.²⁶

넷째, **populist nationalism**의 사례인가. 후쿠야마가 말하는 populism의 핵심은 지도자가 복수의 이해와 제도를 통과하는 대의제보다 ‘진정한 국민’을 직접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때 국민의 범위가 문화적·민족적 경계와 결합하면 liberal democracy의 liberal 요소와 갈등할 수 있다.

[사실] 2025-2026년 후쿠야마와 Stanford CDDRL의 공개 논평은 미국의 rule of law, checks and balances, 관료제의 전문성과 state capacity를 중요한 문제로 다뤘다. 이는 그의 비판적 평가이지 본 보고서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²⁷

[종합평가] Trump 현상은 End of History를 단순히 ‘틀렸다’고 만드는 사건보다, 후쿠야마의 초기 인간론과 후기 쇠퇴론을 동시에 작동시키는 스트레스 테스트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²⁶Francis Fukuyama, “Trump and American Political Decay,” *Foreign Affairs*, Nov. 9, 2016; “Rotten to the Core? How America’s Political Decay Accelerated During the Trump Era,” *Foreign Affairs*, Jan. 18, 2021.

²⁷Stanford CDDRL, “CDDRL Scholars Explore Impacts of Executive Orders and Policy Changes on Global Democracy,” Feb. 27, 2025; Stanford Law, “A Threat to the Rule of Law?” May 2, 2025.

10. 국제정치

[RQ 24] 러시아와 Putin: 1990년대 기대와 권위주의적 재구성

소련 해체 직후의 러시아는 시장화·선거·서구와의 통합이 자유민주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1990년대 낙관론의 대표적 시험장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의 급격한 민영화와 국가역량의 붕괴, 과두경제의 형성, 법 집행의 취약성은 “시장경제 + 선거”만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후쿠야마의 후기 이론으로 러시아를 읽으면 경로가 더 분명하다. 공산주의 국가가 해체된 뒤 **Rule of Law**와 **impersonal state**가 충분히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유화가 진행되면 재산권 자체가 정치적 권력과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된다. 경쟁적 선거가 존재하더라도 국가기관·법원·언론·경제자원의 자율성이 약하면 accountability의 실질적 의미가 제한된다.

Putin 체제의 강화는 강한 국가의 복원처럼 보였지만, 후쿠야마의 관점에서는 Weber적 의미의 비인격적 국가와 개인화된 권력의 차이를 구분해야 한다. 행정·안보능력이 증가해도 법이 통치자를 독립적으로 제약하지 못하고 경제·정치엘리트의 지위가 최고권력과 관계에 좌우된다면 이는 modern impersonal state와 다르다.

Nationalism 역시 핵심이다. 소련 붕괴 이후의 지위상실, 제국적 기억, 서방과의 인정경쟁은 단순한 물질적 이해를 넘어 thymotic politics의 요소를 갖는다. 러시아의 권위주의화는 경제근대화가 자동으로 liberal democracy를 만든다는 견해를 약화시키며, recognition과 geopolitical status가 정치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종합평가] 러시아는 초기 후쿠야마에게 상당한 수정요구를 제기했지만 후기 이론에는 오히려 잘 들어맞는다. 약한 법치·취약한 비인격적 국가·엘리트 네트워크·민족적 지위정치라는 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RQ 25] 중국과 후쿠야마: 권위주의적 국가역량은 대안체제가 될 수 있는가

중국은 End of History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장기 시험이다. 러시아가 경제성과와 제도적 매력에서 제한적이라면, 중국은 수십 년의 고속성장, 거대한 산업기반, 기술능력, 높은 행정동원력을 결합하여 **authoritarian capitalism** 또는 party-state developmentalism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이 때문에 중국이 단순한 ‘민주화 이전 단계’가 아니라 독자적 대안질서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후쿠야마는 중국의 **state capacity**를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의 역사이론에서 중국은 세계 최초의 강한 관료국가 사례다. 현대 CCP는 이 장기적 국가전통에 Leninist party organization과 시장경제를 결합했다. 중앙조직, 당 인사체계, 대규모 인프라, 산업정책, 기술감시 능력은 서구의 ‘약한 독재국가’ 이미지와 맞지 않는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강한 국가와 좋은 정치질서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중국의 약점은 **rule of law**와 **accountability**의 독립적 제도화가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법원이 최고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해 통치자까지 제약할 수 있는가, 정책실패와 사회불만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위로 전달되는가, 지도자 승계가 예측가능하고 비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가가 핵심이다. 그는 전통중국의 “bad emperor problem”을 현대 중국의 정보·승계 문제와 연결해 설명해왔다.²⁸

Meritocracy 주장도 검토가 필요하다. 중국 관료제는 시험·성과·경력평가 전통을 갖지만, 실제 고위직 승진에서 능력, 정치적 충성, 네트워크가 어떻게 결합되는지 경험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또한 감시기술은 국가의 정보수집과 통제능력을 높이지만, 통치자에 대한 독립적 피드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 않는다.

[비판자들의 주장] 비판자들은 중국이 이미 경제성장·기술·국가동원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다른 현대성의 경로를 제공했다고 본다. 반대로 후쿠야마적 관점에서는 장기적 혁신, 정보의 정확성, 승계, 시민의 dignity 요구, 법적 예측가능성에서 구조적 한계가 누적될 수 있다고 본다.

[종합평가] 중국은 아직 ‘결정적 반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장기간 높은 성과를 내는 권위주의 체제가 보편적 모방력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End of History의 가장 직접적인 경험적 시험을 제공한다.

²⁸Francis Fukuyama, “Reflections on Chinese Governance,” *Journal of Chinese Governance* 1, no. 3 (2016): 379–391, DOI: 10.1080/23812346.2016.1212522.

[RQ 26] Ukraine 전쟁: ‘역사의 귀환’인가, End of History와 양립 가능한가

러시아의 2022년 전면 침공은 ‘역사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다시 대중논쟁의 중심으로 끌어왔다. 영토 전쟁, 대규모 군사동원, 민족주의, 핵억지, 동맹정치가 다시 국제질서의 중심에 등장한 것은 1990년대 탈냉전 낙관론과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이 의미에서 “history has returned”라는 수사는 상당한 직관적 힘을 가진다.

그러나 실제 후쿠야마의 명제와 비교하면 보다 세밀한 판정이 필요하다. End of History는 전쟁이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계적 이념대안의 소진을 논했다. 따라서 전쟁의 존재는 직접반증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러시아의 정치모델이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보편적 정당성을 갖는 대안으로 확산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럼에도 우크라이나전은 초기 논지의 국제정치적 낙관성을 약화시킨다. 대국 간 세력경쟁, 안보딜레마, 군사력, 국경과 영토는 국내정치체제의 수렴만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한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power politics가 여전히 강력한 설명력을 가진다.

후쿠야마는 2022년 Stanford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침공과 우크라이나의 저항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의 경쟁이라는 맥락에서 보았고, 당시 이를 민주주의의 회복 가능성과 연결해 해석했다.²⁹ 이 평가는 전쟁의 실제 장기결과와 별개로 후쿠야마 자신의 이론적 해석을 보여준다.

[종합평가] Ukraine은 End of History의 ‘사건종말’이라는 허구적 명제는 반박하지만, 실제 이론에는 국제권력정치의 지속성을 더 크게 반영하라는 강한 수정을 요구한다. 이 분야에서는 realism의 설명력이 후쿠야마보다 분명히 강한 영역이 있다.

²⁹Stanford FSI, “A Resurgence of Democracy?” interview with Francis Fukuyama, Dec. 2022.

[RQ 27] 국제정치학자로서의 후쿠야마: realism, liberalism, constructivism과의 관계

후쿠야마는 국제정치학의 전형적인 체제이론가가 아니다. Kenneth Waltz나 John Mearsheimer처럼 국제체제의 무정부성과 권력분포에서 국가행동을 도출하지 않고, 국내정치의 정당성·제도·경제근대화가 국제질서의 장기성격을 바꿀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서 그는 넓은 의미의 **liberal internationalism**에 가깝다.

Realism과의 차이는 명확하다. 현실주의는 국가의 국내체제보다 생존·안보·상대적 권력이 국제정치에서 더 지속적인 변수라고 본다. 자유민주주의가 확산되어도 안보경쟁이 사라진다고 보장할 수 없다. Ukraine 전쟁과 미중경쟁은 이 비판의 힘을 보여준다.

Constructivism과는 예상보다 접점이 있다. 후쿠야마는 이념·정당성·recognition을 단순한 물질적 권력의 부산물로 보지 않는다. 국가와 집단이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정치질서를 정당하다고 보는지가 행동을 형성한다. 다만 그는 다양한 정체성이 계속 공존한다는 데서 멈추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장기적 규범수렴 가능성을 더 강하게 주장한다.

Democratic peace theory와도 구별된다. 민주적 평화론은 주로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경험적 명제를 분석한다. 후쿠야마는 훨씬 큰 범위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보편사의 종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democratic peace가 경험적으로 지지된다고 End of History가 자동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Table 7: 후쿠야마와 주요 국제정치 접근법

접근법	핵심 변수	후쿠야마와의 관계
Realism	권력·안보·무정부성	가장 강한 경쟁관점
Liberalism	제도·상호의존·국내체제	넓게 공유
Constructivism	규범·정체성·사회적 의미	recognition에서 점점
Democratic Peace	민주국가 간 전쟁패턴	부분적 경험적 보조
Civilizational theory	문명·문화적 지속성	Huntington과 핵심 대조

11. Fukuyama vs Huntington

[RQ 28] 이념적 수렴 vs 문명적 분화: 대비는 얼마나 정확한가

대중적 서술에서 Fukuyama와 Huntington은 탈냉전의 두 예언자로 대비된다. Fukuyama는 **ideological convergence**, Huntington은 **civilizational divergence**를 대표한다. 이 대비는 일정 부분 정확하다. 후쿠야마는 자유민주주의가 장기적으로 보편적 정당성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본 반면, Huntington은 근대화가 서구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종교·역사·문명적 정체성이 국제갈등의 장기적 축으로 남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양자를 극단적인 반대로 만들면 오해가 생긴다. 후쿠야마 역시 민족주의와 종교가 사라진다고 보지 않았고, 1992년 책의 *megalothymia*와 이후 *Identity*는 문화·정체성의 강한 정치성을 인정한다. Huntington도 세계가 ‘문화만으로’ 움직인다고 보지 않았고, 국가이익과 권력의 중요성을 계속 인정했다.

진짜 차이는 근대화가 정치적 정당성의 수렴까지 만들어내는가에 있다. Huntington은 경제와 기술이 비슷해져도 문명적 가치와 정치문화의 차이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후쿠야마는 문화차이가 중요해도 인간의 보편적 *recognition*과 근대화가 자유주의적 권리를 향한 압력을 장기적으로 강화한다고 본다.

1990년대 이후 경험은 혼합적이다. 동유럽과 일부 아시아·라틴아메리카의 민주화는 Fukuyama의 수렴론에 유리했지만, 이슬람정치, 중국의 독자적 경로, 러시아 민족주의, 인도·터키 등에서 나타난 문명·종교·민족의 정치화는 Huntington의 경고에 힘을 준다. 그러나 문명경계 자체가 모든 갈등을 예측하는 것도 아니다.

[종합평가] 둘의 차이를 “한 사람은 완전히 틀리고 다른 사람은 맞았다”로 정리하기보다, **Fukuyama**는 정당성의 장기방향을, **Huntington**은 문화적 다원성과 갈등의 지속성을 더 잘 포착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RQ 29] Fukuyama vs Huntington의 정치발전론: 실제로는 가까운 두 사람

국제정치 이미지와 달리 정치발전론에서 후쿠야마는 Huntington의 직접적 후계자에 가깝다. Huntington의 1968년 핵심 주장은 경제성장·교육·도시화 같은 modernization이 곧바로 안정적 민주주의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사회동원과 정치참여가 빠르게 늘지만 정당·관료제·법·국가 같은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면 정치적 불안정과 폭력이 증가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이 문제를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라는 더 세분화된 구조로 발전시킨다. 국가역량은 사회의 요구를 집행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고, 법치는 권력의 자의성을 막으며, 책임성은 통치자가 사회의 요구에 반응하도록 한다. 세 요소가 다른 속도로 발전하면 불균형이 발생한다.

둘 모두 **political decay**를 중요하게 본다. Huntington은 정치적 제도화가 약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후쿠야마는 이를 elite capture, patrimonialization, rigidity, vetocracy의 구체적 메커니즘으로 확장한다. 둘 모두 ‘민주주의가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는 단순한 민주화론과 거리가 있다.

차이는 규범적 종점에 있다. Huntington은 질서와 제도화를 민주주의와 별개의 문제로 분석하며 특정 체제를 세계사의 최종형태로 두지 않는다. 후쿠야마는 후기에도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우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진단의 제도론에서는 가깝고, 역사철학적 결론에서는 멀다.

12. 후쿠야마와 민주주의·국가·제도 이론

[RQ 30] 후쿠야마와 민주주의 이론: Dahl, Linz, Stepan, Diamond, Lipset 비교

Robert Dahl의 *polyarchy*는 민주주의를 경쟁과 참여의 제도적 조건으로 분석한다. 자유로운 반대와 포괄적 정치참여가 핵심이다. Juan Linz와 Alfred Stepan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consolidation을 분석하고, 민주적 규칙이 “the only game in town”이 되는 조건을 탐구한다. Larry Diamond는 민주주의의 질, 자유, 시민사회, democratic recession을 장기간 연구했다. Lipset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안정 사이의 관계를 고전적으로 제기했다.

후쿠야마의 독창성은 이 민주주의 문헌에 **state capacity**를 더 전면적으로 결합했다는 데 있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있어도 국가가 폭력을 통제하지 못하거나 세금을 걷지 못하고 정책을 집행하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반대로 효율적 국가가 있어도 법치와 **accountability**가 약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그의 민주주의 이론은 따라서 **performance**와 **legitimacy**의 연결을 중요하게 본다. 2025년 *Delivering for Democracy: Why Results Matter*에서 후쿠야마와 공동연구자들은 시민에게 실제 성과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계약과 민주주의 지지를 회복하는 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³⁰

[종합평가] 후쿠야마가 민주주의 이론에 추가한 핵심은 “좋은 민주주의 = 더 많은 참여”라는 단선적 생각보다, 선거책임성과 통치능력의 결합을 강조한 것이다. 이 때문에 그의 연구는 민주화론과 행정국가 연구 사이의 간극을 메운다.

³⁰Francis Fukuyama, Chris Dann, and Beatriz Magaloni, “Delivering for Democracy: Why Results Matter,” *Journal of Democracy* 36, no. 2 (April 2025): 5-19.

[RQ 31] 후쿠야마와 국가론: Weber, Tilly, Mann, North, Acemoglu & Robinson

후쿠야마의 국가개념은 Max Weber의 영향이 가장 직접적이다. 국가는 일정한 영토 안에서 정당한 강제력을 집중하고, 현대국가는 비인격적이고 전문적인 관료제를 통해 규칙을 집행한다. 후쿠야마가 Qin 중국을 ‘현대적 국가’의 초기 사례로 부르는 기준도 바로 혈연·가산적 지배에서 벗어나 보다 표준화된 관료적 지배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Charles Tilly는 “war made the state, and the state made war”라는 유명한 문제의식을 통해 유럽 국가형성을 군사경쟁·조세·자원동원과 연결했다. 후쿠야마도 전쟁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정치질서의 기원을 전쟁 하나로 환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전쟁국가 경쟁, 유럽의 교회와 법, 인도의 종교규범, 친족조직의 진화를 함께 분석한다.

Michael Mann은 국가의 **despotic power**와 **infrastructural power**를 구별했다. 전자는 엘리트가 시민사회와 협상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권력이고, 후자는 국가가 사회 전역에 실제로 결정을 집행할 능력이다. 후쿠야마의 state capacity는 후자와 강한 친화성을 갖는다. 강한 국가란 독재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니라, 전문조직이 보편적 규칙과 공공정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국가다.

Douglass North는 제도를 게임의 규칙으로 보고 거래비용과 인센티브를 통해 경제성장을 설명한다. 후쿠야마는 North의 제도 중요성을 공유하지만, 제도의 기원을 더 역사적·정치적·생물학적으로 추적한다. Acemoglu와 Robinson은 권력분배와 inclusive/extractive institutions를 중심으로 설명하는 반면, 후쿠야마는 국가역량 자체를 엘리트 제약과 분리된 축으로 본다.

Table 8: State capacity 개념의 비교

학자	국가의 핵심	후쿠야마와의 관계
Weber	정당한 강제력·관료제·합리화	직접적 개념적 기반
Tilly	전쟁·조세·자원동원	국가형성의 경쟁 메커니즘 공유
Mann	infrastructural power	state capacity와 가장 가까운 구별
North	규칙·인센티브·거래비용	제도 중요성 공유, 기원 설명은 다름
A&R	권력분배·포용/착취 제도	국가역량을 더 독립적 축으로 보는 점에서 차이
Fukuyama	capacity·impersonality law/accountability	+ 권력의 생성과 제약을 분리·결합

[종합평가] 후쿠야마 국가론의 가장 유용한 지점은 **state scope**와 **state strength**를 구별하고, 국가역량을 민주주의·법치와 독립적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작은 정부/큰 정부의 이념적 논쟁을 행정능력의 문제와 분리한다.

[RQ 32] 후쿠야마와 제도주의: **historical, rational choice,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

후쿠야마를 하나의 제도주의 학파에 넣기는 어렵다. 가장 가까운 것은 **historical institutionalism**이다. 그는 제도가 만들어지는 순서(sequencing), 초기 선택이 후대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 제도의 장기적 지속과 적응실패, 전쟁·종교·식민주의 같은 역사적 분기점을 강조한다. 중국과 유럽이 서로 다른 순서로 국가와 법을 발전시켰다는 논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는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의 언어도 사용한다. 정치인·관료·이해집단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고, rent-seeking과 principal-agent problem은 제도의 성과를 설명한다. 민주적 accountability는 대리인인 통치자가 주권자인 시민의 이해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도 볼 수 있다. 다만 후쿠야마는 인간을 순수한 효용극대화자로 환원하지 않고 친족선호·인정욕구·규범을 함께 고려한다.

Sociological institutionalism과의 접점은 legitimacy, norms, culture, social trust에 있다. Trust에서 경제조직의 규모와 협력은 형식적 계약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공유규범과 사회자본에 의존한다. Identity에서는 인간이 ‘적절한’ 정체성과 존엄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정치행동을 형성한다.

[종합평가] 후쿠야마를 가장 정확하게 부르면 **historically grounded eclectic institutionalist**다. 강점은 학파 간 경계를 넘어 국가·경제·문화·인간본성을 통합하는 데 있고, 약점은 그만큼 각 메커니즘의 미시적 식별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RQ 33] Fukuyama vs Acemoglu & Robinson: *Why Nations Fail*과 *The Narrow Corridor*

후쿠야마와 Daron Acemoglu·James Robinson은 모두 제도를 장기적 발전의 핵심으로 보지만 분석단위가 다르다. *Why Nations Fail*은 **inclusive institutions**와 **extractive institutions**의 대비를 통해 정치권력의 분산과 경제적 기회의 포용성이 혁신과 장기성장을 촉진한다고 주장한다. 권력을 독점한 엘리트는 창조적 파괴가 자신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에 착취적 제도를 유지하려는 유인을 갖는다.

후쿠야마의 삼분법에서는 이것이 더 세분된다. inclusive political institutions에 해당하는 요소 가운데 일부는 accountability이고, 엘리트도 법에 구속되는 부분은 rule of law다. 그러나 A&R의 초기 설명에서 상대적으로 덜 독립적으로 다뤄진 **state capacity**를 후쿠야마는 별도 축으로 둔다. 약한 국가는 엘리트가 제약되어 있어도 기본질서와 공공재를 만들지 못할 수 있다.

*The Narrow Corridor*에서는 두 접근이 더 가까워진다. A&R은 자유가 강한 국가(**Leviathan**)와 강한 사회 사이의 균형, 이른바 Red Queen effect 속에서 유지된다고 본다. 국가가 너무 약하면 폭력과 무질서가, 너무 강하고 사회가 약하면 despotic Leviathan이 나타난다. 이 구조는 후쿠야마의 “국가는 권력을 만들고, 법치와 책임성은 권력을 제약한다”는 균형론과 매우 유사하다.

차이는 강조점이다. A&R은 국가와 사회의 권력관계와 정치적 투쟁을 더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후쿠야마는 제도유형의 역사적 기원과 관료제의 비인격성·역량을 더 강조한다. 또한 후쿠야마는 recognition과 human nature를 거대이론에 포함시킨다.

[종합평가] 두 연구프로그램은 경쟁이라기보다 상호보완적이다. 후쿠야마는 “어떤 제도기능이 필요한가”를 세분화하고, A&R은 “그 제도적 균형이 어떤 권력투쟁 속에서 유지되는가”를 더 날카롭게 설명한다.

13. 역사철학과 인간 본성

[RQ 34] 후쿠야마와 역사철학: teleology, progress, modernization, human nature

후쿠야마를 역사철학자로 부를 수 있는 가장 강한 근거는 그가 **Universal History**의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복원했다는 점이다. 20세기 후반 사회과학은 거대 목적론에 회의적이었지만, 후쿠야마는 근대 자연과학의 누적성과 인간의 인정욕구라는 두 동력 때문에 인류사가 완전히 무방향적인 과정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의 progress 개념은 기술발전과 정치적 자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과학기술은 생산력과 군사력, 행정능력을 누적적으로 변화시키며 경제구조를 수렴시키는 힘을 갖는다. 그러나 정치적 자유는 recognition의 문제를 필요로 한다. 물질적으로 번영하는 권위주의 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근대화만으로 정치체제의 종점을 도출할 수 없다.

Human nature는 이 틀의 연결고리다. 인간이 오직 욕망과 계산만 가진다면 효율적인 권위주의 시장체제가 안정적 종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인간이 dignity와 recognition을 요구한다면 장기적으로 정치적 지위와 권리에 대한 요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후쿠야마의 생각이다. 이 가설은 그의 역사철학을 순수한 경제결정론과 구분한다.

후기 정치발전론은 이 목적론을 약화시키지만 제거하지 않는다.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는 다양한 순서로 형성되고 decay할 수 있다. 역행과 실패가 상시적이라는 점에서 역사는 직선이 아니다. 그럼에도 후쿠야마는 2022년 이후에도 자유주의를 가장 정당한 다원사회 통치원리로 옹호한다. 목적지의 규범적 우위는 유지되고 경로가 더 복잡해진 셈이다.

[종합평가] 후쿠야마는 철저한 역사결정론자라기보다 **directional, non-linear teleology**의 이론가다. 방향성은 인정하지만 필연적 시간표와 비가역적 진보는 인정하지 않는다.

[RQ 35] 목적론 문제: 어떤 의미에서 teleological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닌가

목적론(teleology)은 역사를 최종목표를 향해 전개되는 과정으로 본다는 의미에서 후쿠야마에게 분명 존재한다. 자유민주주의가 “final form”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이전 정치형태를 보편적 인정의 불완전한 단계로 배열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의 이론은 Hegel과 Marx의 거대역사 전통에 속한다.

그러나 목적론에는 강도 차이가 있다. 강한 목적론은 모든 사회가 필연적으로 동일한 종점에 도달하며 역행이 일시적이라고 가정한다. 후쿠야마의 후기 저작은 여기에서 멀다. 중국처럼 다른 제도조합이 장기간 지속될 수 있고, 미국처럼 성숙한 자유민주주의도 decay할 수 있으며, 국가·법치·책임성이 다른 순서로 발달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그의 End는 경험적 ‘완결’이라기보다 정당성 경쟁의 명제다. 세계의 모든 정부가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야 논제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다른 체제가 인류 보편의 정치적 이상으로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가 하는 것이다. 바로 이 정의가 이론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반증가능성을 낮춘다.

[비판자들의 주장] 비판자들은 후쿠야마가 현실의 자유민주주의가 불완전할 때 그것을 ‘아직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이상’으로 처리하고, 권위주의 체제가 성공할 때는 장기적으로 불안정할 것이라고 미루는 방식으로 이론을 보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 이는 목적론적 이론의 전형적 문제다.

[종합평가] 따라서 학술적으로는 End of History를 정확한 예측법칙보다 역사적 방향성에 관한 강한 연구가설로 낮추어 읽는 것이 생산적이다. 그때 이론은 중국·민주주의 후퇴·기술변화 같은 사례에 의해 실제로 수정될 수 있다.

[RQ 36] 인간 본성: reason, desire, thymos, recognition, dignity

후쿠야마의 인간론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Reason**은 수단과 목적을 계산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설계하는 능력이다. **Desire**는 생존·재산·소비·물질적 만족을 추구한다. **Thymos**는 자신이 특정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고 느끼고 그것을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spirited part다. 그는 Plato의 삼분법을 현대 정치심리의 언어로 재구성한다.

Recognition은 thymos의 사회적 형태다. 사람은 자신이 부자라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부가 정당하게 존중받는지, 시민으로 동등하게 취급되는지, 자신의 집단이 수치당하지 않는지가 정치적 행동을 바꾼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충격이나 지역경제 쇠퇴는 동일한 소득효과를 넘어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Dignity는 recognition의 규범적 기초다. 자유주의적 권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한 기본적 존엄을 가진다는 가정을 제도화한다. 이 원리는 노예제·신분제·인종차별처럼 인간의 법적 지위를 계층화하는 질서와 근본적으로 충돌한다. *Identity*에서 현대정치의 핵심은 바로 이 dignity 요구가 보편적인 권리에서 좁은 집단정체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후쿠야마는 인간 본성을 고정된 단순 본능 목록으로 보지 않는다. 문화와 제도는 thymos가 표현되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그러나 모든 정치행동을 사회구성으로만 설명하는 관점에도 반대한다. *Our Posthuman Future*에서 그는 인간 본성이 권리와 정치질서의 안정적 기반이며 생명공학이 이를 변경할 경우 자유민주주의의 도덕적 토대도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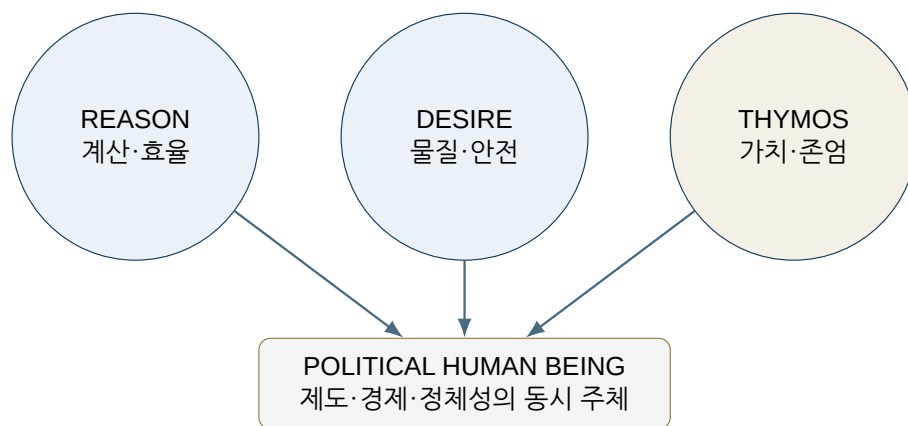


Figure 5: 후쿠야마의 인간 본성 삼분법

Source: Analytical synthesis based on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1992), Part III, and *Identity* (2018).

14. 주요 저작별 분석 II

[RQ 37] *Our Posthuman Future* (2002): 생명공학과 자유민주주의의 인간학적 기반

*Our Posthuman Future*는 후쿠야마의 저작세계에서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핵심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책은 인간 본성이 존재하고, 그것이 기본적 가치와 정치체제의 가능성을 형성하며, 생명공학이 인간 본성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초 역시 바뀔 수 있다고 주장한다. Macmillan의 공개 excerpt에서 후쿠야마는 biotechnology의 가장 중요한 위협을 “alter human nature”의 가능성으로 규정한다.³¹

그가 검토하는 기술은 뇌과학, neuropharmacology, 수명연장, genetic engineering이다. 문제는 기술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명백한 이익을 동반하기 때문에 규범적 위험이 더 미묘하다고 본다. 특히 germ-line intervention처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 변경은 인간 간 자연적 평등의 전제를 흔들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권리개념은 모든 인간이 어떤 근본적 도덕적 지위를 공유한다는 생각에 의존한다. 만약 기술을 통해 일부 집단이 지능·수명·정서·신체능력에서 체계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다면 “동등한 인간”이라는 정치적 범주가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후쿠야마는 인간 본성을 단지 생물학적 사실이 아니라 권리의 철학적 기반으로 다룬다.

[비판자들의 주장] 비판은 인간 본성을 안정적 본질로 보는 것이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는 점, 기술변화가 곧 계급적 생물학적 분화를 만든다는 인과가 불확실하다는 점, 규제가 기술혁신과 치료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대로 AI·유전자편집의 시대가 오면서 그의 문제제기는 다시 현재성을 얻었다.

[종합평가] 이 책은 End of History의 숨은 전제를 드러낸다. 역사의 종말은 인간 자체가 대체로 동일한 존재로 남는다는 조건 아래에서만 의미가 있다. 인간 본성이 변하면 ‘정치의 종점’도 다시 열릴 수 있다.

³¹Francis Fukuyama,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publisher excerpt at Macmillan.

[RQ 38] *Trust* (1995): 사회자본, 가족, 문화, 경제조직

*Trust*는 경제적 성공을 공식제도와 시장인센티브만으로 설명하는 관점에 도전한다. 후쿠야마는 경제 활동이 문화에 embedded되어 있고, 사람들이 공유규범을 토대로 협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거래비용과 조직형태를 바꾼다고 본다. *Trust*의 핵심 사회자본 정의는 사람들이 공동목적을 위해 집단과 조직에서 협력할 수 있는 능력과 연결된다.³²

High-trust society에서는 가족관계를 넘어 낯선 사람들과 대규모 조직을 만들기가 상대적으로 쉽다. Low-trust society에서는 협력이 가족이나 좁은 네트워크 안에 집중되고, 대기업·중간단체·시민조직을 만들기 위해 더 강한 국가개입이나 공식규칙이 필요할 수 있다. 후쿠야마는 미국·독일·일본, 프랑스·이탈리아·중국 등 다양한 사례를 문화와 기업조직의 관계로 비교했다.

이 논의는 후기 국가론과 연결된다. 비인격적 관료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공무원이 직위를 사적 친족네트워크보다 공적 규칙에 따라 사용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필요하다. 반대로 patrimonialism은 낮은 신뢰를 의미한다기보다 신뢰의 범위가 가족·후원집단 안으로 협소하게 집중된 상태로 볼 수 있다.

[비판자들의 주장] 문화설명론은 쉽게 본질주의에 빠질 수 있다. ‘중국은 low-trust’, ‘일본은 high-trust’처럼 사회 전체를 고정적 문화로 분류하면 제도변화·지역차이·세대변화·정책효과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 사회자본 역시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범죄조직과 배타적 집단 내부에도 강한 신뢰가 존재할 수 있다.

[종합평가] *Trust*의 장기적 공헌은 특정 국가의 문화등급보다 시장과 국가가 작동하려면 비공식 규범과 협력능력이 필요하다는 통찰이다. 이는 후쿠야마가 자유주의를 원자화된 개인주의와 동일시하지 않는 중요한 근거다.

³²Francis Fukuyama,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1995);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Trust,” citing Fukuyama 1995, p. 10.

15. 주요 저작 전체 지도와 사상 발전

[RQ 39] 주요 저작 전체 지도: 질문·주장·개념·전후관계

후쿠야마의 저작은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전 책의 빈틈을 다음 책이 채우는 방식으로 연결된다. *End of History*가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제시하면 *Trust*는 그것을 지탱하는 사회규범을 묻고, *Our Posthuman Future*는 그 질서가 전제하는 인간 본성을 묻는다. *State-Building*은 좋은 제도의 행정적 전제조건을, 정치질서 2부작은 역사적 기원과 쇠퇴를, *Identity*는 인정투쟁의 재발을,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는 규범적 방어를 제공한다.

Table 9: 후쿠야마 주요 저작의 연대순 지도

연도	저작	핵심 질문	핵심 주장/개념	전후관계
1989	"The End of History?"	냉전말기 이념전화는 어디로 가는가	ideological evolution, liberal democracy	연구프로그램의 출발
1992	<i>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i>	왜 자유민주주의가 종점인가	Universal recognition, Last Man	History, thymos, 1989 논문의 철학·근대화론적 확장
1995	<i>Trust</i>	시장경제에 문화가 왜 필요한가	trust, social capital, spontaneous sociability	자유사회의 사회적 기반 보완
1999	<i>The Great Disruption</i>	사회규범은 붕괴 후 재생되는가	social order, norm regeneration	사회자본 연구 확대
2002	<i>Our Posthuman Future</i>	인간 본성이 변하면 정치도 변하는가	human nature, dignity, biotechnology	recognition의 인간학적 기반 명시
2004	<i>State-Building</i>	좋은 국가를 어떻게 만드는가	state strength, capacity, weak states	Political Order로 전환
2006	<i>America at the Crossroads</i>	민주주의를 군사력으로 확산할 수 있는가	limits of power, legitimacy, nation-building	Iraq 경험에 따른 외교정책 수정
2011	<i>Origins of Political Order</i>	국가·법·책임성은 어디서 왔는가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	비교정치 거대이론 확립

Table 9 (계속). 후쿠야마 주요 저작의 연대순 지도

연도	저작	핵심 질문	핵심 주장/개념	전후관계
2012	"The Future of History"	중산층 쇠퇴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가	inequality, middle class	초기 경제낙관론 보완
2013	"What Is Governance?"	정부의 질을 어떻게 측정할까	capacity, autonomy	국가역량의 측정화
2014	<i>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i>	성공한 제도는 왜 쇠퇴하는가	decay, patrimonialism, corruption, vetocracy	정치질서 2부작 완성
2018	<i>Identity</i>	포퓰리즘·정체성 갈등은 왜 생기는가	dignity, resentment, recognition	1992 thymos의 현대화
2022	<i>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i>	자유주의의 핵심과 과잉은 무엇인가	classical liberalism, universality, pluralism	규범적 재정립
2025	"Delivering for Democracy: Why Results Matter" (Journal article)	민주주의는 왜 성과를 내야 하는가	service delivery, legitimacy, state capacity	<i>Journal of Democracy</i> 36(2), 5-19; 민주주의와 행정성과 연결
2026	<i>In the Realm of the Last Man</i> (forthcoming at research cutoff)	자신의 지적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나	memoir, reassessment	2026-09-08 예정; 전 연구프로그램의 자기회고

[종합평가] 이 연표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는 1992의 **legitimacy** → 2004의 **capacity** → 2011-14의 **institutional development** → 2018의 **identity** → 2022 이후의 **liberal reconstruction**이다.

[RQ 40] 사상 발전 단계: 일곱 Phase의 핵심 질문과 변화점

후쿠야마의 지적 생애는 최소 일곱 단계로 나눌 수 있다. **Phase I (Cold War / End of History)**는 자유민주주의의 역사적 정당성에 집중한다. **Phase II (Trust / Social Capital)**는 시장과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비공식 규범을 탐구한다. **Phase III (Human Nature / Biotechnology)**는 자유주의가 전제하는 인간학을 명시한다.

Phase IV (State-Building)는 9·11 이후 국가실패와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통해 통치능력을 연구중심으로 끌어온다. **Phase V (Political Development)**는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의 기원과 decay를 비교역사적으로 체계화한다. **Phase VI (Identity / Populism)**는 recognition을 현대 포퓰리즘과 문화갈등의 설명변수로 재활성화한다. **Phase VII (Liberalism Crisis / State Capacity)**는 자유주의의 규범적 방어와 정부가 실제 성과를 내는 능력을 결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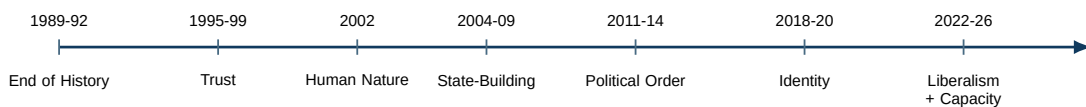


Figure 6: 후쿠야마 사상의 7단계 발전

Source: Author's periodization based on Fukuyama's publications, 1989–2026.

중요한 것은 단계가 서로 단절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recognition은 1992년에 처음 체계화된 뒤 2018년에 다시 중심이 된다. 인간 본성은 2002년의 특수주제처럼 보이지만 political order의 친족 선호·patrimonialism 논의에도 들어간다. State capacity는 2004년에 시작되어 2025-2026년 미국 행정부가 논의에서 다시 핵심이 된다.

[종합평가] 후쿠야마는 “처음부터 하나의 완성된 이론을 가진 학자”가 아니라 현실의 반례를 만날 때 연구프로그램의 빈 부분을 추가해 온 학자다. 그의 변화 자체가 연구대상이다.

16. 후쿠야마 사상의 변화와 비판

[RQ 41] 연속성과 변화: 철회인가, 수정인가, 확장인가

후쿠야마가 자신의 초기 주장을 ‘철회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다. 더 정확한 분류는 **핵심 명제는 유지, 인과메커니즘은 수정, 적용범위는 제한, 제도론은 대폭 확장**이다. 그는 자유민주주의가 경쟁 이념들 가운데 가장 강한 보편적 정당성 주장을 갖는다는 초기 명제를 2020년대에도 대체로 유지한다. 2026년 Reuters 인터뷰에서도 그는 End of History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적 종점에 관한 논지로 다시 방어했다.³³

그러나 1990년대에 비해 경제근대화가 정치적 자유로 이어지는 속도와 자동성에 대한 기대는 약해졌다. 중국의 장기적 권위주의 성장, 러시아의 역행, 중동의 국가실패는 ‘시장화와 선거’보다 국가형성·법치·행정역량이 훨씬 어려운 문제임을 보여줬다. 이 점에서 *State-Building*과 *Political Order*는 초기 이론에 중요한 교정을 가한다.

*Identity*는 recognition을 철회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재사용한다. 초기에는 보편적 인정이 자유민주주의의 종점으로 가는 힘이였지만, 후기에는 인정욕구가 좁은 민족·종교·집단정체성에 붙을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내부에서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 즉 동일한 심리적 메커니즘이 진보와 쇠퇴 모두를 설명한다.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는 자유주의를 시장경제와 더 명확히 분리하고, 국가역량·사회적 보호·시민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2025-2026년의 state capacity 논의는 이 변화의 연장선이다. 이라크전 이후 군사적 민주주의 수출에 대한 회의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회의가 합쳐진다.

Table 10: 초기 주장과 후기 변화의 판정

초기 요소	판정	후기 변화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우위	유지	2022 자유주의론에서 재방어
경제근대화의 민주화 압력	수정	자동성 약화, sequencing 강조
국가역량의 중요성	대폭 확장	2004 이후 연구 중심
Recognition	확대	2018 identity·resentment로 재해석
미국 제도에 대한 자신감	약화	vetocracy·decay·capacity 비판
시장자유화에 대한 기대	수정	2008 이후 국가·사회정책 강조
민주화의 비가역성	사실상 포기	decay와 backsliding 상시 가능

[종합평가] “End of History → Political Order → Identity → Liberalism”은 서로 다른 네 프로젝트가 아니라, 정당성 → 제도 → 심리 → 규범적 재건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발전과정이다.

³³Reuters, “Francis Fukuyama on changing your mind,” September 3, 2026.

[RQ 42] 주요 비판자: 가장 강력한 비판만 선별하기

후쿠야마에 대한 비판은 너무 많아 단순목록으로는 의미가 없다. 가장 강한 비판은 다섯 갈래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Huntington**식 문화·문명 비판은 근대화가 가치의 수렴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중국·이슬람정치·민족주의의 지속은 이 비판에 경험적 힘을 준다.

둘째 **Mearsheimer**를 포함한 현실주의 비판은 국제정치에서 국내체제의 수렴보다 무정부성·안보·권력 분포가 더 지속적이라고 본다. 대국간 경쟁과 전쟁이 계속되는 세계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이 power politics를 제거한다는 기대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Ukraine 전쟁은 이 비판을 강화했다.

셋째 **Derrida**의 철학적 비판은 ‘종말’ 언어 자체와 자유민주주의의 이상/현실 간 간극을 문제 삼는다. 현실에 빈곤·배제·전쟁·실업·불평등이 남아 있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면, 실제 고통을 이상형의 미완성으로 밀어낼 수 있다. *Specters of Marx*는 후쿠야마의 종말론을 Marx의 유령이 사라지지 않는 현실과 대조했다.

넷째 **Marxist**와 정치경제학적 비판은 경제불평등·계급권력·자본의 국제적 구조가 후쿠야마 이론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본다. 후쿠야마는 2012년 이후 불평등을 더 다루지만, 자본축적과 노동관계가 정치제도를 어떻게 구조화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Marx나 Piketty, 일부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보다 얕다.

다섯째 **postcolonial/Global South** 비판은 서구 자유민주주의를 종점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식민주의·제국주의·노예제·국경형성·국제경제의 불평등이 충분히 분석되지 않는다고 본다. 중국·인도·아프리카·중동의 역사가 ‘서유럽에서 완성되는 세 제도의 부분적 선구’로 배열될 위험이 있다.

[종합평가] 가장 강한 비판은 단일 사건으로 End of History를 조롱하는 비판이 아니다. 보편적 종점이 라는 이론구조가 다양한 역사경로와 권력관계, 국제체제의 지속성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비판이 가장 중요하다.

17. 1989-현재 경험적 검증

[RQ 43] End of History의 경험적 검증: 사건별 명제-관찰-판정

경험적 검증을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반증대상인지 정해야 한다. 여기서는 세 명제를 분리한다. **H1**: 자유민주주의가 경쟁 이념보다 보편적 정당성에서 우위에 있다. **H2**: 경제·사회 근대화는 장기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압력을 높인다. **H3**: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은 대국간 이념·군사경쟁을 약화시킨다. 사건마다 이 세 명제에 미치는 효과가 다르다.

Yugoslav Wars는 민족주의와 국가해체가 탈냉전에도 강력하다는 점을 보여 H3의 낙관성을 약화시켰지만, 유고슬라비아의 민족주의가 보편적 대안 이념으로 세계를 끌어당긴 것은 아니므로 H1의 직접반증은 아니다. **Rwanda** 역시 국가실패·민족정치의 파괴성을 보여주지만 자유민주주의의 대안체제의 보편성을 입증하지 않는다.

9/11과 **War on Terror**는 종교적·정체성적 동원의 힘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강화했다. 그러나 jihadist ideology가 세계적 통치모델로 광범위한 보편적 매력을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Iraq**와 **Afghanistan**은 민주주의의 정당성보다 국가형성과 제도이식의 난이도를 드러냈으며, 후쿠야마 자신이 이후 국가역량론으로 크게 수정한 영역이다.

Arab Spring은 dignity와 accountability 요구가 권위주의 사회에서도 폭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recognition 가설에 유리했지만, 이후의 국가실패·내전·권위주의 복귀는 민주화가 곧 정치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후기 이론을 확인했다. **China**의 부상은 H2에 가장 강한 도전이며, 장기적으로 H1까지 시험한다.

Putin Russia는 시장화·교육·중산층이 반드시 민주주의 공고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강한 반례다. **Brexit**와 서구 포퓰리즘은 민족주권과 정체성의 지속성을 보여준다. **Ukraine War**는 H3를 강하게 약화시킨다. **global democratic backsliding**은 민주화가 비가역적이라는 대중적 해석을 사실상 무너뜨린다.

Table 11: 1989–2026 주요 사건과 후쿠야마 논지의 관계

사건	주로 시험하는 명제	판정	핵심 이유
소련 붕괴	H1	강한 지지	Marxism-Leninism의 이념적 정당성 붕괴
동유럽 민주화	H1/H2	지지	자유민주주의의 급속한 확산
Yugoslavia	H3	수정 필요	민족주의·폭력의 강한 지속
9/11	H1/H3	부분적 도전	종교적 identity의 동원력
Iraq/Afghanistan	H2	중대한 수정	국가형성·제도이식의 난이도
Arab Spring	H1/H2	양면적	dignity 요구와 제도실패가 동시에 존재
China rise	H1/H2	가장 강한 도전	권위주의 + 성장 + state capacity
Putin Russia	H2	강한 도전	민주화의 역행·재권위주의화
Trump/populism	H1	수정 필요	선진 민주주의 내부의 decay·identity 갈등
Ukraine War	H3	강한 도전	대국간 전쟁·세력정치의 지속
Democratic backsliding	H1/H2	강한 수정	공고화의 비가역성 부정

핵심 사례의 반증가능성 매트릭스

Table 12: 명제-관찰-경쟁설명-판정의 엄밀한 검증틀

사례/명제	관찰 가능한 함의	경쟁 설명	현재의 잠정 판정
China / H2	고소득·교육·도시화가 장기적으로 법치·책임성 요구를 확대	CCP 적응력, 성과정당성, nationalism, repression	자동 민주화 가설에는 강한 도전; 장기 방향성은 미결
Russia / H2	시장화·중산층 확대가 impersonal institutions를 강화	자원경제, 약한 국가, 엘리트 포획, 전쟁·지정학	근대화의 비가역성을 부정; 후기 decay론과 양립
Ukraine / H3	민주국가 확대가 대국간 전쟁의 빈도·강도를 낮춤	안보딜레마, 세력균형, 영토갈등	국제정치 낙관성에 강한 수정 필요
Populism / H1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 우위가 선진국 내부에서도 안정적	지위불안, 경제충격, 정체성·정당체계 재편	H1의 안정성은 약화; recognition 이론은 강화
Democratic backsliding / H1-H2	민주화가 공고화될수록 역행 위험이 구조적으로 감소	제도포획, polarization, executive aggrandizement	비가역성 해석은 부정; political decay를 핵심 변수로 승격

검증의 의미. 이 표는 후쿠야마 이론을 ‘전쟁이 일어났으니 틀렸다’거나 ‘민주주의 언어가 남았으니 맞았다’는 식으로 면역화하지 않기 위한 장치다. 장기적으로 중국이 정치적 책임성 없이도 높은 소득·혁신·승계안정·국제적 모방력을 지속한다면 초기 H1-H2의 범위는 더 좁아져야 한다. 반대로 권위주의의 정보·승계·정당성 문제가 구조적으로 누적되어 제도개방 압력이 증가한다면 후쿠야마의 방향론 일부가 살아남는다.

[RQ 44] 1989-1992 예측의 정확성: 당시의 예측 난이도까지 고려하기

사후적 평가는 쉬우므로 예측은 당시의 정보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1989년 여름에 소련이 2년 안에 해체될지, 독일이 통일될지, 동유럽 전체가 어떤 속도로 체제전환을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이 조건에서 공산주의의 이념적 위기가 단순한 개혁국면이 아니라 구조적 패배일 수 있다고 해석한 것은 상당히 대담한 진단이었다.

적중한 부분은 Marxism-Leninism이 세계적 보편이념으로 급속히 쇠퇴한다는 판단이다. 이후 공산당 일당체제를 유지한 중국·베트남조차 경제운영에서 고전적 중앙계획을 크게 수정했다. 또한 자유선거·권리·헌법·법치의 언어가 전 세계 정치정당성의 기준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는 점은 H1에 일정한 지지를 준다.

부분적으로 적중한 부분은 근대화와 민주주의 압력이다. 소득·교육·중산층이 민주주의 유지와 상관되는 경향은 존재하지만, 중국·결프 권위주의·러시아 등 강한 예외가 있다. 민주주의의 ‘제3의 물결’은 1990-2000년대 확대됐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역행이 장기화됐다.

틀리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인 부분은 대국간 이념·군사갈등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국가역량의 형성 난이도에 대한 과소평가, 권위주의 국가의 학습·기술적 적응력에 대한 과소평가다. 특히 21세기 중국은 권위주의가 단지 과거의 잔존물이 아니라 높은 행정능력과 디지털 기술을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아직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중국의 장기적 정치수렴이다. 중국이 수십 년 더 높은 수준의 부·혁신·국가 역량을 유지하면서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매력적인 국제적 모델이 될지, 아니면 정보·승계·법치·dignity 문제로 구조적 압력을 받을지는 열린 질문이다.

[종합평가] 1989년의 후쿠야마를 ‘모든 것을 맞힌 예언자’나 ‘전쟁 하나로 틀린 사람’으로 평가하는 것은 모두 부정확하다. 가장 성공한 예측은 공산주의의 이념적 붕괴이고, 가장 약한 예측은 국제권력정치와 권위주의 적응력에 관한 낙관성이다.

18. 핵심 개념사전

[RQ 45] 후쿠야마에 대한 대표적 오해 18개와 실제 주장

1. 오해: “후쿠야마는 앞으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History를 이념적·보편사적 진화의 의미로 사용했다.
2. 오해: “전쟁이 사라진다고 했다.” 실제: 갈등이 남을 수 있음을 명시했으며 대규모 국가간 전쟁 감소 가능성을 더 제한적으로 기대했다.
3. 오해: “1992년 미국이 완벽한 사회라고 선언했다.” 실제: Last Man과 megalothymia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내부불만을 논했다.
4. 오해: “모든 나라가 곧 민주주의가 된다고 예측했다.” 실제: 제3세계의 많은 지역이 오랫동안 history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5. 오해: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동일시했다.” 실제: 후기 저작에서는 더 명확히 구별하며 중국을 핵심 사례로 다룬다.
6. 오해: “경제성장만 하면 민주화한다고 봤다.” 실제: 경제근대화는 압력을 만들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아니며, 후기에는 sequencing을 강조한다.
7. 오해: “민족주의가 사라진다고 했다.” 실제: 초기부터 민족주의를 지속 가능한 갈등원으로 인정했다.
8. 오해: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고 봤다.” 실제: recognition과 identity를 통해 종교적 동원의 지속성을 설명한다.
9. 오해: “역사의 종말을 완전히 철회했다.” 실제: 핵심 정당성 명제는 유지하면서 경로와 제도 메커니즘을 크게 수정했다.
10. 오해: “후기 **Political Order**는 초기 연구와 무관하다.” 실제: 자유민주주의가 실제로 성립하는 조건을 설명하는 확장이다.
11. 오해: “강한 국가를 옹호하므로 권위주의자다.” 실제: 강한 국가와 법치·책임성의 균형을 주장한다.
12. 오해: “법이 많으면 **rule of law**다.” 실제: 통치자도 법에 구속되는지가 핵심이다.
13. 오해: “민주주의는 선거만 있으면 된다.” 실제: State와 Rule of Law를 별도 필수요소로 둔다.
14. 오해: “**Identity**는 2016년 이후 새로 만든 개념이다.” 실제: recognition과 thymos는 1992년 이론의 핵심이었다.
15. 오해: “자유주의 = **neoliberalism**이다.” 실제: 2022년 책에서 neoliberal excess를 비판한다.
16. 오해: “중국을 곧 붕괴할 체제로 본다.” 실제: 중국의 역사적 국가역량과 강점을 상당히 진지하게 평가한다.
17. 오해: “**Political Decay**는 부패의 다른 말이다.” 실제: 경직성·포획·재가산화·부적응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다.
18. 오해: “그의 이론은 전부 1989년에 완성됐다.” 실제: 학문적으로 가장 방대한 연구는 2011-2014년 정치질서 2부작이다.

[종합평가] 후쿠야마 논쟁의 상당 부분은 실제 명제보다 제목의 수사와 대중적 요약을 공격하는 데서 발생한다. 정확한 비판을 위해서는 **1989** 논문의 명제, **1992** 책의 인간론, **2011-14** 제도론을 분리해야 한다.

[RQ 46] 핵심 개념사전 I: End of History에서 Accountability까지

End of History

정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높은 보편적 정당성을 갖는 정치이념의 진화가 종점에 접근했다는 명제. 등장: 1989 논문, 1992 저서. 기능: 냉전종식을 보편사에 위치시킴. 사례: 공산주의 이념의 붕괴. 비판: 반증가능성, 목적론, 권력정치 과소평가.

Universal History

정의: 인류사를 상호연결된 방향적 과정으로 보는 역사관. 기능: 개별 사건을 장기적 자유의 확대와 연결. 비판: Eurocentrism과 결과론적 역사배열의 위험.

Liberal Democracy

정의: 개인권리·법치의 liberal 원리와 선거·책임성의 democratic 원리의 결합. 기능: 초기에는 역사적 종점, 후기에는 State와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할 제도형태.

Recognition

정의: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 타인과 사회에 의해 승인되기를 원하는 요구. 등장: 1992년 중심개념, 2018년 재활성화. 사례: 시민권·민족주의·정체성정치. 비판: 물질적 이해와 독립적인 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Thymos

정의: Plato에서 차용한 spirited part; 자기 가치와 명예에 반응하는 심리적 차원. 기능: 경제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치행동을 설명.

Isothymia

정의: 타인과 동등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기능: 평등한 시민권과 민주주의의 심리적 기반.

Megalothymia

정의: 타인보다 우월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기능: 탁월성·영웅주의·지도력의 원천이면서 권위주의·민족주의의 위험.

Last Man

정의: 안전·소비·평등에 만족하고 위대한 목적과 위험을 회피하는 인간. 등장: Nietzsche에서 차용, 1992 책의 내부비판. 기능: 자유민주주의 성공의 심리적 취약성 설명.

State

정의: 영토 안에서 강제력을 집중하고 법·정책을 집행하는 위계적 조직. 기능: 질서·안보·공공재 제공.

Rule of Law

정의: 시민뿐 아니라 실제 통치자와 엘리트도 구속하는 법. 기능: 국가권력의 자의성 제약. 대조: rule by law.

Accountability

정의: 통치자가 공동체의 이해와 의사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제도. 현대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가 대표적. 기능: 권력이 공익에 사용되도록 제약.

[RQ 46-2] 핵심 개념사전 II: State Capacity에서 Liberalism까지

State Capacity

정의: 국가가 정한 법·정책을 실제로 집행하고 공공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 등장: *State-Building*, “What Is Governance?”. 비판: 분야별 capacity 차이를 하나의 국가점수로 단순화하기 어렵다.

Political Development

정의: 정치제도가 시간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하는 과정. 단순한 정부교체가 아니다. 기능: 국가·법·책임성의 형성과 변동을 장기적으로 설명.

Political Decay

정의: 기존 제도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공적 조직이 사적 네트워크에 다시 포획되는 과정. 사례: rigid veto structure, clientelism, elite capture.

Patrimonialism

정의: 국가·공직·공공자원이 통치자의 가족·친족·사적 네트워크와 분리되지 않는 지배. 기능: modern impersonal state의 반대개념.

Neopatrimonialism

정의: 현대적 헌법·관료제의 외형 속에서 실제 권력과 자원이 사적 후원관계로 배분되는 상태.

Vetocracy

정의: 지나치게 많은 veto actor와 절차가 집단적 결정을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체제. 등장: 미국 political decay 분석. 비판: 소수자 보호와 권력제약의 가치를 과소평가할 위험.

Identity

정의: 개인·집단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해하며 어떤 존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보는가에 관한 정치적 자기이해. 기능: 현대 포퓰리즘과 문화갈등을 recognition으로 연결.

Dignity

정의: 인간이 특정한 기본가치를 가진 존재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규범적 지위. 기능: 자유주의적 권리의 도덕적 기반.

Liberalism

정의: 동등한 개인의 권리, 법치, 제한정부, 다양한 삶의 방식의 평화적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치원리. 대조: democracy는 통치자 선택과 책임성, capitalism은 경제조직, neoliberalism은 시장확장의 특징 이념.

[종합평가] 이 개념사전의 중요한 특징은 초기 철학어휘와 후기 제도어휘가 서로 독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Recognition**이 정치적 요구를 만들고, **State·Law·Accountability**가 그것을 제도화하며, **decay**가 제도를 약화시키고, **Identity**가 다시 **recognition conflict**를 촉발한다.

19. 후쿠야마 이론의 전체 구조·공헌·약점

[RQ 47] 전체 이론의 논리적 모델: 인간 본성에서 Political Decay까지

후쿠야마의 전체 이론은 네 층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첫째 인간학적 층에는 reason, desire, thymos가 있다. 인간은 효율과 물질뿐 아니라 recognition을 추구한다. 둘째 사회경제적 층에는 과학기술, 경제근대화, 교육, 도시화, 사회동원이 있다. 이들은 전통적 신분질서를 약화시키고 복잡한 사회를 만든다.

셋째 정치제도 층에는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가 있다.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질서·공공재·권리·참여를 동시에 제공할 제도가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recognition의 보편적 요구를 제도화하는 강력한 형식이지만, 국가역량이 약하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법치가 약하면 자의적 권력이 되며 책임성이 약하면 시민의 요구가 통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넷째 동태적 층은 decay와 renewed recognition conflict다. 성공한 제도는 경직되고 엘리트에게 포획되며, 공직이 다시 사적 네트워크에 종속될 수 있다. 정부성과가 나빠지고 불평등·지위불안·문화갈등이 커지면 resentment와 identity politics가 강화된다. 이때 보편적 recognition이 좁은 집단적 recognition으로 분절될 수 있다.

이 모델의 순환성은 중요하다. End of History는 단순한 직선의 마지막점이 아니라, 후기 이론을 통합하면 제도적 균형을 끊임없이 재생해야 하는 불안정한 성취가 된다. 역사철학적 종점과 정치발전의 영구적 유지과제가 긴장 속에 공존한다.

[후쿠야마의 주장] 성숙한 후쿠야마를 가장 정확히 표현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정당성의 종점일 수 있지만, 정치발전의 종점은 아니다.” 제도는 계속 유지·개혁되어야 하고 decay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RQ 48] 후쿠야마 사상의 강점: 왜 이 거대이론은 여전히 읽히는가

첫 번째 강점은 거대 질문을 회피하지 않는 능력이다. 현대 정치학이 식별 가능한 좁은 인과효과에 집중할수록 “국가는 왜 생겼는가”, “민주주의의 장기적 방향은 무엇인가”, “인간은 왜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같은 질문이 주변화될 수 있다. 후쿠야마는 이러한 질문을 경험적 비교정치와 다시 연결한다.

두 번째는 철학과 비교역사의 결합이다. Hegel·Nietzsche·Plato의 인간론과 Qin 중국, Brahmanic India, 중세 유럽, 현대 미국의 제도발전을 같은 연구프로그램 안에서 다룬다. 이 결합은 역사학자의 기준에서는 지나치게 압축적일 수 있지만, 정치학자에게는 비교 가능한 개념적 지도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국가역량의 복원이다. 민주화 연구가 선거·권리·시민사회에 집중하던 시기에, 후쿠야마는 executive branch와 bureaucracy의 질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What Is Governance?”는 capacity와 autonomy를 정부의 질을 측정하는 핵심차원으로 제안했다.³⁴

네 번째는 **political decay**의 보편화다. 정치발전은 ‘개도국이 서구를 따라가는 과정’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포함한 모든 정치질서가 겪는 적응문제다. 이 관점은 서구를 고정된 종착점으로 보는 근대화론을 일정 부분 교정한다.

다섯 번째는 **recognition**을 정치경제에 연결한 점이다. 소득·계급만으로 포퓰리즘과 민족주의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dignity와 status의 언어로 다룬다. 현대 정치심리와 정체성 연구가 커지면서 이 요소는 오히려 현재성이 높아졌다.

[종합평가] 후쿠야마의 가장 큰 강점은 개별 명제의 정확도보다 서로 다른 수준의 문제를 연결하는 아키텍처다. 인간 본성, 경제근대화, 국가역량, 법치, 민주주의, 정체성을 한 화면에서 볼 수 있게 한다.

³⁴Francis Fukuyama, “What Is Governance?” CGD Working Paper 314, 2013.

[RQ 49] 후쿠야마 사상의 약점: Eurocentrism에서 군사력 문제까지

Eurocentrism은 가장 오래된 비판이다. 중국은 State, 인도는 Law, 유럽은 Accountability의 기원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서유럽에서 세 요소가 결합한다는 서사는 세계사를 유럽의 제도완성으로 향하는 단계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후쿠야마가 비서구 사례를 상당히 진지하게 다루더라도 최종 규범기준이 liberal democracy라는 점에서 목적론 문제는 남는다.

Modernization bias도 존재한다. 경제성장·교육·도시화가 개인주의와 참여압력을 높인다는 경향은 많은 연구와 양립하지만, 권위주의 국가는 검열·복지·민족주의·감시·조직통제를 통해 근대사회의 요구를 상당기간 흡수할 수 있다. 중국은 이 편향의 가장 강한 시험이다.

Liberal triumphalism은 특히 1990년대 해석에서 문제였다. 자유민주주의가 규범적으로 우월하다는 주장과 실제로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예측은 구분되어야 한다. 2000년대 이후 democratic backsliding은 후자를 약화시켰다.

경제불평등과 자본권력은 초기 저작에서 상대적으로 약하다. 후쿠야마는 2012년 이후 중산층 쇠퇴와 불평등을 다루지만, 노동시장, 금융화, 세대간 자산격차, 기업권력의 제도적 영향은 그의 중심변수가 아니다. 이 영역에서는 Marxist,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Piketty 계열 연구가 더 세밀하다.

제국주의와 식민주의, **Global South** 역시 거대서사에서 충분히 중심화되지 않는다. 식민지 국경·강제 노동·인종화·국제경제의 불평등이 국가역량과 법치의 형성에 어떻게 장기적 영향을 미쳤는지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

문화변수는 양날의 칼이다. *Trust*의 장점은 문화의 중요성을 복원한 것이지만, 국가를 high-trust/low-trust로 분류하면 변화하는 제도와 내부 다양성을 고정적 문화로 오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정치의 군사력이다. 후쿠야마의 가장 약한 분야 가운데 하나는 국가간 전쟁, 안보딜레마, 핵억지, 동맹, 세력균형의 독립적 논리다. 이 영역에서는 realism이 더 강력한 중범위 이론을 제공한다.

[종합평가] 후쿠야마를 비판할 때 가장 생산적인 방식은 ‘역사가 안 끝났으니 틀렸다’가 아니라, 그의 방향적 보편사가 놓치는 권력·경제·제국·안보의 독립적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RQ 50] 가장 중요한 학문적 공헌: 분야별 평가

역사철학: 냉전 말기에 Universal History와 recognition의 문제를 현대 정치철학의 중심으로 되돌렸다. 독창성은 Hegel-Kojève를 자유민주주의와 근대화에 결합한 데 있다.

비교정치: 국가·법치·책임성을 서로 다른 역사적 기원을 갖는 제도로 분해했다. 민주주의의 질을 단순한 선거지표보다 넓게 보게 했다.

정치발전론: 발전과 decay를 하나의 동적 과정으로 연결했다. 성공한 선진국도 political decay를 겪을 수 있다는 점에서 development를 비서구의 ‘추격’ 문제로만 보지 않았다.

민주주의 이론: accountability와 state capacity의 결합을 강조했다. 시민의 선택과 정부의 실제 수행능력을 함께 봐야 한다는 점은 2025년 ‘delivering for democracy’ 연구까지 이어진다.

국가론: scope와 strength의 구별, impersonal bureaucracy, capacity와 autonomy의 강조가 중요하다. 현대 행정국가 연구와 비교발전 연구를 연결한다.

국제정치: 장점은 국내정치의 정당성과 세계질서를 연결한 것, 약점은 power politics의 자율성을 충분히 이론화하지 못한 것이다.

현대 자유주의론: 자유주의를 neoliberalism과 분리하고, 동등한 존엄·법치·다원적 공존·시민적 국가를 중심으로 재구성했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와 국가역량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종합평가] 후쿠야마의 학문적 공헌은 어느 한 분야에서 새 개념 하나를 발명한 것보다, 역사철학의 ‘왜 자유민주주의인가?’와 비교정치의 ‘그 질서는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연결한 것에 있다.

20. 학문적 위상과 최종 종합평가

[RQ 51] 학자로서의 위상: Rawls, Berlin, Dahl, Tilly, Mann, Habermas, Huntington, Mearsheimer와 비교

후쿠야마의 학문적 위상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은 서로 다른 분야의 학자를 단일 순위에 놓는 것이다. John Rawls는 규범적 정치철학에서 정의의 원칙과 제도설계를 체계화했고, Isaiah Berlin은 가치다원주의와 자유개념을 정교화했다. Jürgen Habermas는 의사소통행위·공론장·법과 민주주의의 규범이론을 구축했다. 이들과 비교하면 후쿠야마의 철학은 덜 체계적이고 텍스트해석도 더 선택적이다.

Robert Dahl은 민주주의의 경험적·규범적 분석에서 contestation과 participation을 정교하게 개념화했고, Charles Tilly와 Michael Mann은 국가형성과 사회권력의 역사사회학에서 방대한 원자료와 중범위 메커니즘을 발전시켰다. 이들과 비교하면 후쿠야마의 역사서술은 더 광범위하지만 개별 사례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얇다.

Samuel Huntington은 가장 중요한 비교대상이다. 후쿠야마는 Huntington의 제도화·정치질서·근대화 불균형 문제를 이어받았고, 동시에 탈냉전 세계의 장기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결론에 도달했다. John Mearsheimer는 국제정치학에서 명확한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을 제공하는 반면, 후쿠야마는 국제체제보다 국내제도와 정당성의 변화를 더 중시한다.

따라서 후쿠야마의 강점은 특정 하위분야의 가장 정밀한 이론가라는 데 있지 않다. 그는 **macro-synthetic thinker**, 즉 정치철학·비교정치·발전론·역사사회학·국제정치를 하나의 큰 문제로 연결하는 종합형 사상가다. 학계 내부에서의 인용과 대중지성사에서의 영향이 동시에 크다는 점도 독특하다.

[종합평가] 20세기 후반-21세기 초 정치사상사에서 후쿠야마는 Rawls처럼 하나의 규범철학 체계를 만든 철학자도, Tilly처럼 하나의 역사사회학 방법을 완성한 학자도 아니다. 대신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과 정치질서의 형성을 한 연구프로그램으로 묶은 대표적 거대 종합가로 위치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RQ 52] ‘End of History의 사람’이라는 이미지의 문제: Political Order가 더 중요한가

후쿠야마의 대중적 명성은 1989년 논문의 제목이 압도적으로 지배한다. 언론과 대중논쟁에서 그의 이름은 전쟁이나 권위주의가 등장할 때마다 “역사가 다시 돌아왔다”는 수사와 함께 소환된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그의 1995년 이후 연구, 특히 2004년 이후의 국가·제도 연구를 가린다.

학문적 지속성만 놓고 보면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와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가 더 넓은 재사용 가능성을 갖는다. End of History는 거대한 역사철학적 가설이기 때문에 논쟁의 규모는 크지만, 경험적 연구를 설계하는 구체적 변수는 제한적이다. 반면 state capacity, rule of law, accountability, patrimonialism, political decay, vetocracy는 국가별·시기별 비교에 직접 적용할 수 있다.

특히 개발정책과 민주화 연구에서는 “선거를 도입하면 국가가 좋아지는가?”보다 “행정역량·법치·책임성을 어떤 순서와 조합으로 구축하는가?”가 더 실질적인 문제다. 후쿠야마의 후기 연구는 이 질문을 중국·인도·유럽·식민지 경험·미국까지 확장한다.

그렇다고 End of History의 중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recognition과 Universal History가 없으면 후기 제도론은 “좋은 행정”에 관한 기술적 연구로 축소될 수 있다. 후쿠야마가 왜 State와 Rule of Law와 Accountability의 특정 균형을 선호하는지, 왜 liberal democracy가 규범적으로 중요하다고 보는지는 초기 역사철학이 설명한다.

[종합평가] 가장 균형 잡힌 평가는 다음과 같다. 대중지성사에서 후쿠야마를 불멸하게 만든 것은 **End of History**이고, 정치학에서 장기적으로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Political Order**다. 둘은 경쟁하는 업적이 아니라 각각 목적지와 제도경로를 설명한다.

[RQ 53] 후쿠야마 사상을 한 문장·50자·100자·한 문단·1페이지로 압축하기

한 문장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인간의 인정 욕구와 근대화가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강력한 보편적 정치이상으로 만들지만, 그 이상이 현실에서 작동하려면 국가역량·법치·정치적 책임성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고 그 제도들도 언젠가 쇠퇴할 수 있다고 설명한 역사철학적 비교정치학자다.

약 50자

인정·근대화·국가·법치·민주주의의 장기 진화를 연구한 거대 정치사상가.

약 100자

후쿠야마는 인간의 인정욕구와 근대화가 자유민주주의를 향한 압력을 만들지만, 국가·법치·책임성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실패하거나 쇠퇴한다고 본다.

한 문단

후쿠야마의 전체 사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의 우연한 제도가 아니라 근대화와 인간의 보편적 인정 욕구가 만들어낸 강력한 역사적 정당성의 형태라는 명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는 이후 민주주의가 저절로 탄생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이동하여 강한 국가, 법치, 정치적 책임성의 역사적 형성과 균형을 연구했고, 성공한 제도도 엘리트 포획·경직성·재가산화·양극화로 쇠퇴할 수 있다고 보았다. *Identity and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에서는 다시 recognition과 dignity로 돌아가 민족주의·포퓰리즘·집단정체성을 분석하고, 자유주의를 시장만능주의와 분리하여 보편적 시민권과 다원주의의 원리로 재정립했다.

1페이지 요약

후쿠야마의 연구프로그램은 “인간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원하게 되는가?”와 “자유로운 정치질서는 왜 그렇게 만들기 어렵고 또 쉽게 쇠퇴하는가?”라는 두 질문을 연결한다. 초기에는 Hegel-Kojève의 Universal History와 Plato의 thymos를 통해 인간이 물질적 욕망뿐 아니라 자신의 존엄에 대한 recognition을 요구한다고 보았다. 근대 자연과학과 경제발전은 사회를 복잡하고 교육받은 도시사회로 바꾸며, recognition의 보편화는 법적·정치적 평등을 요구한다. 이 결합이 자유민주주의를 경쟁 이념 가운데 가장 강한 종점으로 만든다는 것이 End of History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 체제는 인간의 megalothymia와 Nietzsche의 Last Man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다.

2000년대 이후 그는 ‘정당성의 종점’에서 ‘정치질서의 형성’으로 이동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은 독재정권을 무너뜨리는 것과 기능하는 국가를 만드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임을 보여줬다. *State-Building*은 국가의 기능범위(scope)와 집행강도(strength)를 구별하고, 정치질서 2부작은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를 현대 질서의 세 독립요소로 제시했다. 중국은 강한 국가의 역사, 인도는 정치권력을 제약하는 법의 역사, 유럽은 조직된 사회세력과 책임성의 역사를 보여준다.

성공한 정치질서도 끝이 아니다. 제도는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해집단과 엘리트에 포획되며, 공적 관료제가 다시 친족·후원관계에 종속될 수 있다. 미국의 vetocracy는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다수의 veto point가 오히려 집단행동과 국가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사례다. 2018년 *Identity*에서는 초기의 recognition이 다시 등장한다. 사람들은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지위와 존중의 상실에 반응하며, 이 감정은 nationalism·populism·identity politics로 전환될 수 있다.

따라서 성숙한 후쿠야마의 결론은 1990년대의 단순한 승리선언과 거리가 멀다. 자유민주주의는 여전히 가장 강한 보편적 정치정당성의 후보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유지하려면 유능하고 비인격적인 국가, 통치자도 구속하는 법치, 시민에게 반응하는 책임성, 그리고 좁은 집단정체성을 넘어서는 시민적 recognition이 필요하다.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의 자동 종점’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구축·방어·개혁해야 하는 제도적 성취다.

21. 필독 저작 및 연구 로드맵

[RQ 54] 연구자가 반드시 읽어야 할 후쿠야마 저작: 초급·중급·고급

초급: 핵심 논쟁을 먼저 이해하기

1. **“The End of History?” (1989)** - 책보다 먼저 읽어야 한다. 실제 원문이 사건의 종료가 아니라 이념적 진화의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1992)** - recognition, thymos, megalothymia, Last Man을 통해 제목 너머의 인간론을 이해한다.
3. **Identity (2018)** - 1992년 recognition이 21세기 포퓰리즘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가장 쉽게 보여준다.
4.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2022)** - 후기 후쿠야마가 자유주의를 무엇으로 정의하고 무엇과 구별하는지 확인한다.

중급: 후기 정치발전론으로 이동하기

5. **State-Building (2004)** - 초기와 후기 사이의 관문이다. 국가역량이라는 독립변수가 왜 필요한지 설명한다.
6.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2011)** - State, Rule of Law, Accountability의 역사적 기원을 이해한다.
7.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2014)** - 정치발전·부패·clientelism·vetocracy·decay를 현대 정치에 적용한다.
8. **America at the Crossroads (2006)** - 이라크전을 둘러싼 neoconservatism과 자신의 지적 전환을 이해한다.

고급: 이론의 숨은 기반과 측정문제를 읽기

9. **Trust (1995)** - formal institutions 밖의 사회자본과 문화가 경제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10. **Our Posthuman Future (2002)** - 인간 본성과 자유주의 권리론의 관계를 파악한다.
11. **“What Is Governance?” (2013)** - state capacity와 bureaucratic autonomy를 측정문제로 변환하는 과정을 본다.
12.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The Patterns of History” / “Why Is Democracy Performing So Poorly?”** - 정치질서 2부작을 압축적으로 재검토한다.
13. **“The Future of History” (2012)** - 불평등과 중산층 문제를 통해 초기 경제론의 수정을 확인한다.
14. **In the Realm of the Last Man (2026)** - 출간 후에는 자신의 지적 변화와 Iraq·금융위기·정체성·인간본성에 대한 회고를 원저와 대조해 읽는 것이 중요하다.

권장 순서: 1989 essay → 1992 book → State-Building → Origins → Political Decay → Identity → Liberalism → Trust/Posthuman → 주요 논문과 회고록. 이 순서는 “명제 → 제도 → 현대 위기 → 기반이론”의 순서로 난도를 높인다.

[RQ 55] 후쿠야마 연구용 2차 문헌: 비판·비교·원류를 포함한 Annotated Guide

이 절은 단순 참고문헌이 아니라 후쿠야마를 검증하기 위한 독서 지도다. 원류·직접 비판·경쟁이론·역사사례·현대 민주주의 연구를 분리함으로써 “후쿠야마 찬반”이라는 단순 구도를 피한다.

A. Hegel·Kojève·Recognition

G. W. F. Hegel, *Phenomenology of Spirit*. self-consciousness와 lordship/bondage의 원전. 후쿠야마가 사용하는 인정투쟁의 철학적 원형을 확인하고, 그가 Hegel 전체를 얼마나 선택적으로 재구성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점이다.

Alexandre Kojèv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후쿠야마가 직접적으로 의존한 Hegel 해석의 매개다. universal and homogeneous state와 post-historical condition을 이해하려면 Hegel 원전만큼 중요하다.

Robert R. Williams,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1997). recognition을 상호성·윤리적 삶의 맥락에서 해석한다. 후쿠야마가 이를 자유민주주의의 정치심리로 압축하면서 무엇을 생략했는지 보여준다.

Axel Honneth,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1995 English ed.). 인정투쟁을 사랑·권리·사회적 존중의 세 영역으로 분석한다. 후쿠야마의 thymos가 현대 사회철학에서 가능한 여러 recognition 이론 가운데 하나임을 보여준다.

Robert B. Pippin, *Hegel's Practical Philosophy* (2008). 자유를 단순한 주관적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제도와 규범의 성취로 읽는다. 후쿠야마의 자유 개념을 더 정교한 Hegel 연구와 비교하는 데 유용하다.

John O'Neill, “Hegel against Fukuyama: Associations, Markets and Recognition,” *Politics* 17, no. 3 (1997): 191-196. 후쿠야마의 Hegel 해석이 사회적 연합과 시장관계의 복잡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한다고 직접 비판하는 대표 논문이다.

B. End of History에 대한 직접 비판과 재평가

Jacques Derrida, *Specters of Marx* (1994). ‘종말’의 선언이 자유민주주의 현실의 폭력·배제·불평등을 이상적 미래로 미룰 위험을 지적한다. 가장 철학적으로 강한 직접 비판 중 하나다.

Perry Anderson, *A Zone of Engagement* (1992) 및 후속 세계질서 비평. 자유주의의 역사적 승리를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서구 권력의 맥락에서 읽도록 요구한다. 후쿠야마의 보편사를 정치경제적으로 교정하는 데 유용하다.

Robert Kagan, *The Return of History and the End of Dreams* (2008). 권위주의 대국과 지정학의 귀환을 통해 1990년대 수렴론을 비판한다. Ukraine 전쟁과 미중 경쟁을 평가할 때 직접적인 대조 텍스트다.

John Gray, *False Dawn* (1998). 세계시장과 자유주의 제도의 보편적 수렴을 비판한다. 문화·정치·경제의 다양한 자본주의 형태를 강조한다.

Azar Gat, “The Return of Authoritarian Great Powers,” *Foreign Affairs* 86, no. 4 (2007).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장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일찍 제기했다. 중국이 후쿠야마에 제기하는 도전을 개념화하는 데 중요하다.

Michael Cox, “Whatever Happened to the ‘Triumph of the West’?” 및 탈냉전 질서 연구. 1989년 이후 자유주의 질서의 변화를 국제정치사적으로 재평가한다. 후쿠야마의 당대적 맥락을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된다.

C. 근대화·민주화·민주주의 공고화

Seymour Martin Lipset, *Political Man* (1960).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안정의 고전적 상관관계. 후쿠야마의 modernization mechanism의 사회과학적 선행연구다.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1968). 근대화보다 제도화가 뒤쳐질 때 불안정이 커진다는 논지. 후기 후쿠야마의 가장 중요한 직접 선행자다.

Barrington Moore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1966). 계급구조·농업관계·혁명의 경로를 통해 하나의 보편적 근대화 경로를 거부한다. 후쿠야마의 목적론을 비교역사적으로 견제한다.

Adam Przeworski et al., *Democracy and Development* (2000). 소득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민주화 발생과 민주주의 생존으로 분리한다.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자동으로 낳는다는 단순한 독해를 교정한다.

Daron Acemoglu et al., “Income and Democracy,” *American Economic Review* 98, no. 3 (2008): 808-842. 국가 고정효과를 고려하면 소득증가의 민주화 인과가 약해진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H2의 직접적인 경험적 경쟁연구다.

Carles Boix and Susan Stokes, “Endogenous Democratization,” *World Politics* 55, no. 4 (2003): 517-549.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관계를 Przeworski와 다르게 해석한다. modernization 논쟁이 단일한 결론이 아님을 보여준다.

Ronald Inglehart and Christian Welzel,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2005). 생존가치에서 자기표현가치로의 변화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문화적 근대화론. recognition과 가치 변동을 연결하는 비교점이 된다.

Juan J. Linz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1996). 국가 성·시민사회·법치·관료제 등 민주주의 공고화의 다차원 조건을 분석한다. 후쿠야마의 후기 제도론과 상당한 접점이 있다.

Steven Levitsky and Lucan A. Way, *Competitive Authoritarianism* (2010). 선거가 존재해도 자유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음을 체계화한다. Russia와 여러 hybrid regime을 분석할 때 유용하다.

D. 국가형성·관료제·State Capacity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 합리적·법적 권위와 관료제, patrimonialism의 원전. 후쿠야마의 impersonal state 개념을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다.

Charles Tilly,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1992). 전쟁·조세·자본의 상호작용을 국가형성의 핵심으로 본다. 후쿠야마가 국제군사경쟁을 국가형성에서 얼마나 충분히 다루는지 비교할 수 있다.

Michael Mann, *The Sources of Social Power*, vols. 1-4. 국가의 despotic/infrastructural power와 사회권력의 다중 네트워크를 분석한다. 단일 state capacity 지표가 놓칠 수 있는 차원을 제공한다.

Douglass C. North,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제도·인센티브·경로의존의 고전. 후쿠야마의 역사제도주의적 요소와 합리적 선택 논리를 연결한다.

Peter Evans, *Embedded Autonomy* (1995). 전문관료제와 사회적 연결이 동시에 발전국가의 역량을 만든다고 본다. 후쿠야마의 autonomy/capacity 논의를 산업정책 연구와 연결한다.

Theda Skocpol, *States and Social Revolutions* (1979). 국가를 단순한 사회집단의 반영이 아니라 자율적 조직으로 분석한다. 후쿠야마의 state-centered turn의 중요한 비교점이다.

Joel S. Migdal, *Strong Societies and Weak States* (1988). 사회통제와 국가능력의 관계를 분석한다. “강한 사회”가 항상 좋은 국가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인도·개발도상국 분석에 유용하다.

Timothy Besley and Torsten Persson, *Pillars of Prosperity* (2011). fiscal/legal capacity가 공동으로 축적되는 과정을 형식모형과 경험연구로 분석한다. 후쿠야마의 state capacity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정교화한다.

E. 중국·인도·유럽의 역사사례 검증

Mark Edward Lewis, *The Early Chinese Empires: Qin and Han* (2007). Qin-Han 국가의 군사·행정·제국구조를 세부적으로 설명한다. 후쿠야마의 “early modern state” 압축을 역사학적으로 검증하는 기준점이다.

Yuri Pines, *The Everlasting Empire* (2012). 중국 제국의 정치문화와 통일국가 이념을 장기지속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관료국가의 안정성을 단순한 meritocracy로 환원하지 않게 한다.

Victoria Tin-bor Hui,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2005). 고대 중국과 근세 유럽을 직접 비교하여 전쟁·국가형성의 공통점과 차이를 분석한다. 후쿠야마의 China/Europe 대비를 정밀화한다.

Patrick Olivelle, *Dharmasūtras* (1999)와 *The Law Code of Manu* (2004). dharma의 규범적 자율성을 원전과 역사맥락에서 이해하게 한다. 이를 현대 rule of law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막는다.

Thomas Ertman, *Birth of the Leviathan* (1997). 유럽의 관료제와 대표기관이 왜 서로 다른 조합으로 발전했는지를 비교한다. England/France/Spain 비교를 후쿠야마보다 세밀하게 만든다.

Hendrik Spruyt, *The Sovereign State and Its Competitors* (1994). 주권국가가 도시국가·도시연맹 같은 경쟁형태를 제치고 우세해지는 과정을 설명한다. 유럽 국가형성을 필연적 종착점으로 보는 목적론을 억제한다.

F. Acemoglu & Robinson과 제도경쟁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2012). inclusive/extractive institutions와 권력분배를 중심에 둔다. 후쿠야마의 State-Rule of Law-Accountability 삼각형과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대중적 경쟁이론이다.

Acemoglu and Robinson, *The Narrow Corridor* (2019). liberty를 strong state와 strong society의 균형으로 설명한다. 후쿠야마의 “권력 생성 + 권력 제약” 구조와 놀랍게 수렴한다.

Daron Acemoglu and James A. Robinson, *Economic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2006). 민주주의를 엘리트와 대중의 분배갈등·credible commitment 문제로 모델링한다. recognition 대신 물질적 권력분배를 중심 동력으로 두는 경쟁설명이다.

G. 국제정치 경쟁이론

Kenneth N. Waltz,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1979). 국제무정부성과 권력분포를 국내체제와 독립된 원인으로 본다. End of History의 국제정치적 범위조건을 설정하는 기준점이다.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2001/2014). 대국이 생존을 위해 권력을 추구한다는 offensive realism. Ukraine와 미중 경쟁에서는 후쿠야마보다 군사·세력정치 설명력이 강한 영역이 있음을 보여준다.

G. John Ikenberry, *Liberal Leviathan* (2011).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단순한 국내체제 수렴이 아니라 제도적 구속과 미국의 전략적 질서설계에 의해 유지된다고 본다. 후쿠야마의 domestic-regime emphasis를 보완한다.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1996). 이념의 수렴보다 문명·종교·문화적 정체성의 지속을 강조한다. Fukuyama/Huntington 대비의 핵심 원전이다.

Amitav Acharya, *The End of American World Order* (2014/2018). 다극적·지역적 질서의 부상을 강조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보편적 단일 종착점으로 보는 시각을 Global South 관점에서 교정한다.

H. 자유주의·정체성·포퓰리즘

Isaiah Berlin, “Two Concepts of Liberty.” negative/positive liberty의 구별은 후쿠야마가 liberalism과 state action 사이의 균형을 논할 때 중요한 규범적 배경이다.

John Rawls, *Political Liberalism* (1993). 합리적 다원주의 아래에서 공정한 협력의 원칙을 탐구한다. 후쿠야마의 자유주의가 규범적으로 얼마나 얕거나 두꺼운지 비교하는 기준점이다.

Charles Taylor, “The Politics of Recognition” (1992). 집단정체성과 인정의 문제를 다문화주의 맥락에서 분석한다. Fukuyama의 recognition을 우파·좌파 identity politics 모두에 적용하는 방식과 비교하기 좋다.

Michael Sandel, *Liberalism and the Limits of Justice* (1982/1998). 자유주의의 비공동체적 개인관을 비판한다. 후쿠야마가 communitarian criticism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지점을 이해하게 한다.

Jan-Werner Müller, *What Is Populism?* (2016). populism을 반다원주의적 ‘진정한 국민’ 주장으로 정의한다. 후쿠야마의 populism 설명을 보다 엄밀한 비교정치 개념과 연결한다.

Cas Mudde and Cristóbal Rovira Kaltwasser, *Populism: A Very Short Introduction* (2017). thin-centered ideology로서 populism을 정리한다. recognition 설명과 이념적·조직적 설명을 구분하게 한다.

I. 민주주의 후퇴·성과·최신 데이터

Larry Diamond, *Ill Winds* (2019). 민주주의 후퇴, 중국·러시아의 영향, 미국 내부의 문제를 종합한다. 후기 후쿠야마와 같은 문제군을 다루면서 민주주의 연구의 별도 전통을 제공한다.

Nancy Bermeo, “On Democratic Backsliding,” *Journal of Democracy* 27, no. 1 (2016): 5-19. 현대의 민주주의 붕괴가 쿠데타보다 executive aggrandizement 등 점진적 방식으로 일어난다고 분석한다. political decay의 경험적 메커니즘을 세분화한다.

Steven Levitsky and Daniel Ziblatt, *How Democracies Die* (2018). 정당·엘리트의 gatekeeping과 규범이 민주주의 유지에 중요함을 보여준다. 후쿠야마의 제도론에 비공식 규범을 추가한다.

V-Dem Institute, annual *Democracy Reports*. 민주주의를 electoral, liberal, participatory, deliberative, egalitarian dimensions로 분리한다. 후쿠야마의 liberal/democratic 구별을 경험적으로 추적하는 자료다.

Freedom House, annual *Freedom in the World*.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의 장기추세를 제공한다. 단, End of History의 철학적 정당성을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Francis Fukuyama, Chris Dann, and Beatriz Magaloni, “Delivering for Democracy: Why Results Matter,” *Journal of Democracy* 36, no. 2 (2025): 5-19. 엄밀히는 1차 자료이지만 현대 민주주의 성과논쟁과 연결하기 위해 여기서도 참조한다. state capacity와 legitimacy를 직접 연결하는 후기 연구 프로그램의 최신 형태다.

독서전략. 가장 효율적인 연구방법은 윌류(Hegel/Kojève) → 후쿠야마 원전 → 직접 비판(Derrida/O'Neill/Kagan) → 경쟁제도론(Huntington/Tilly/A&R) → 역사사례 전문연구(Lewis/Pines/Olivelle/Ertman) → 최신 민주주의 데이터 순으로 층위를 분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후쿠야마가 사례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와 그 사례가 실제 역사학에서 얼마나 타당한지를 혼동하지 않는다.

[RQ 56] 최종 종합평가: 12개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

1. 후쿠야마가 실제로 주장한 것은 무엇인가?

자유민주주의가 근대 세계에서 경쟁 정치이념들보다 강한 보편적 정당성의 종점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근거는 근대화의 방향성과 인간의 recognition 요구다.

2. 그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역사적 사건, 전쟁, 민족주의, 종교, 독재, 갈등이 모두 사라진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다. 모든 나라가 단기간에 자유민주주의가 된다고도 주장하지 않았다.

3. 가장 독창적인 사상은 무엇인가?

초기에는 recognition을 Universal History와 자유민주주의에 연결한 것, 후기에는 State + Rule of Law + Accountability를 political development와 decay의 동적 구조로 만든 것이다.

4. 가장 중요한 오류는 무엇인가?

초기 저작이 자유민주주의 수렴의 속도와 안정성, 권위주의의 적응력, 국제권력정치의 지속성, 국가형성의 난이도를 과도하게 낙관적으로 읽은 점이다.

5. 현재까지 가장 잘 살아남은 것은 무엇인가?

state capacity, political decay, patrimonialism, recognition, identity의 분석틀이다. End of History의 정당성 명제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경험적 범위는 더 좁게 읽어야 한다.

6. 1989년 이후 세계정치는 그의 이론을 반증했는가?

전체를 단일하게 반증했다고 말하기 어렵다. 공산주의의 이념적 붕괴는 지지했고, 중국·민주주의 후퇴·대국간 전쟁은 강한 수정을 요구했다. 정확한 판정은 부분적 지지 + 중대한 수정이다.

7. 중국은 결정적 반증인가?

아직 역사적으로 열린 질문이다. 중국이 장기간 높은 부·혁신·국가역량과 안정적 권위주의를 결합하여 보편적 모방모델이 된다면 결정적 도전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정보·승계·법치·dignity의 구조적 문제가 커진다면 후쿠야마의 일부 가설이 살아남는다.

8. Trump와 populism은 End of History의 실패인가?

단순한 논리적 반증은 아니다. 선진 민주주의의 안정성에 대한 낙관을 약화시키지만, recognition·megalotheism·political decay라는 후쿠야마 자신의 후기개념으로 상당 부분 분석할 수 있다.

9. Political Order 연구는 초기 이론을 어떻게 수정했는가?

“왜 자유민주주의인가?”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추가했다. 정당성 이론을 제도형성 이론으로 전환·확장했다.

10. 오늘날 읽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역량·법치·민주주의·정체성·인간본성을 별개의 주제가 아니라 하나의 정치질서 문제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다.

11. 후쿠야마는 무엇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가?

역사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진 비교정치·정치발전론자이며, 후기에는 자유주의 사상가와 행정국가 연구자의 성격이 강해졌다.

12. 50년 후 어떻게 기억될 가능성이 높은가?

대중문화에서는 End of History의 저자로, 학문사에서는 **recognition**의 정치철학과 **State-Rule of Law-Accountability**의 비교정치학을 연결한 거대 종합가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명제. 후쿠야마의 가장 중요한 지적 유산은 “역사가 끝났다”는 선언보다, 왜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이상으로 남으면서도 현실의 국가는 끊임없이 실패하고 쇠퇴하며 다시 인정투쟁에 휘말리는지 설명하려 한 것에 있다.

부록 A. 56개 원래 연구항목 대응표

이 부록은 최초 연구요청의 56개 항목이 확장판 어디에서 다루어졌는지를 추적하기 위한 **requirement crosswalk**다. 동일 주제가 여러 장에서 반복되는 경우 핵심 처리 위치를 우선 표기하였다.

부록 표 A-1. 원래 56개 연구항목과 본 보고서 대응 위치

RQ	원래 연구주제	확장판 핵심 처리
01	인물·성장·Cornell·Harvard·RAND·국무 부·Stanford	제1장 RQ01
02	지적 계보: Plato-Aristotle-Hobbes-Locke-Rousseau-Kant-Hegel-Kojève-Marx-Nietzsche-Tocqueville-Weber-Huntington-Lipset	제2장 RQ02, RQ06-RQ09
03	1989 「The End of History?」의 역사·지적 배경	제2장 RQ03
04	1992 <i>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i> 심층분석	제3장 RQ04
05	End of History의 정확한 의미	제3장 RQ05
06	Hegel과 Kojève	제3장 RQ06
07	Marx와 Fukuyama 비교	제3장 RQ07
08	Nietzsche와 Last Man	제3장 RQ08
09	경제발전과 정치발전	제4장 RQ09
10	End of History에서 Political Order로의 전환	제4장 RQ10
11	<i>State-Building</i>	제5장 RQ11
12	<i>Origins of Political Order</i>	제5장 RQ12
13	중국 국가형성: Qin·Han·관료제	제5장 RQ13
14	인도의 Rule of Law	제5장 RQ14

부록 표 A-1 (계속). 원래 56개 연구항목과 본 보고서 대응 위치

RQ	원래 연구주제	확장판 핵심 처리
15	유럽 정치발전: England·France·Spain·Denmark	제5장 RQ15
16	<i>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i>	제6장 RQ16
17	Political Decay 독립분석	제6장 RQ17
18	미국 정치 쇠퇴·Vetocracy	제6장 RQ18
19	<i>Identity</i>	제7장 RQ19
20	<i>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i>	제7장 RQ20
21	후쿠야마의 liberalism과 인접개념 구별	제8장 RQ21
22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제8장 RQ22
23	Trump 현상	제9장 RQ23
24	러시아·Putin	제10장 RQ24
25	중국의 현대적 도전	제10장 RQ25
26	Ukraine 전쟁	제10장 RQ26
27	국제정치학자로서 Fukuyama, realism·liberalism·constructivism 등	제10장 RQ27
28	Fukuyama vs Huntington 세계관	제11장 RQ28

부록 표 A-1 (계속). 원래 56개 연구항목과 본 보고서 대응 위치

RQ	원래 연구주제	확장판 핵심 처리
29	Fukuyama vs Huntington 정치발전론	제11장 RQ29
30	민주주의 이론: Dahl·Linz·Stepan·Diamond·Lipset	제12장 RQ30
31	국가론: Weber·Tilly·Mann·North·A&R	제12장 RQ31
32	제도주의 세 학파와의 관계	제12장 RQ32
33	Fukuyama vs Acemoglu & Robinson	제12장 RQ33
34	역사철학자로서의 평가	제13장 RQ34
35	Teleology 문제	제13장 RQ35
36	인간본성: reason·desire·thymos·recognition·dignity	제13장 RQ36
37	<i>Our Posthuman Future</i>	제14장 RQ37
38	<i>Trust</i>	제14장 RQ38
39	주요 저작 전체 지도	제15장 RQ39
40	사상발전 단계	제15장 RQ40
41	연속성과 변화·철회/수정/확장 여부	제16장 RQ41
42	주요 비판자·강한 비판 선별	제16장 RQ42

부록 표 A-1 (계속). 원래 56개 연구항목과 본 보고서 대응 위치

RQ	원래 연구주제	확장판 핵심 처리
43	1992년 이후 경험적 검증	제17장 RQ43
44	예측의 정확성	제17장 RQ44
45	대표적 오해 10-20개	제18장 RQ45: 18개
46	핵심 개념사전	제18장 RQ46, RQ46-2
47	전체 이론의 논리모델	제19장 RQ47 및 Executive Summary 도식
48	사상의 강점	제19장 RQ48
49	사상의 약점	제19장 RQ49
50	분야별 핵심 공헌	제19장 RQ50
51	학자로서의 위상	제20장 RQ51
52	End of History 이미지와 Political Order의 상대적 중요성	제20장 RQ52
53	한 문장·50자·100자·한 문단·1페이지 요약	제20장 RQ53, 앞부분 ‘한 페이지 핵심 요약’
54	초급·중급·고급 필독 저작	제21장 RQ54
55	2차 문헌·비평·토론	제21장 RQ55, 부록 C
56	최종 12개 질문	제21장 RQ56

부록 B. 2026년 경험적 검증 자료와 방법론적 주의

본 보고서의 현재적 검증은 ‘민주주의가 상승/하락했다’는 단일 지표에 의존하지 않는다. Freedom House와 V-Dem은 측정대상·코딩방법·규범적 정의가 다르며, 어느 하나도 후쿠야마의 End of History를 직접 측정하는 지표가 아니다. 두 자료는 정치적 권리·시민적 자유·liberal democracy의 제도적 상태가 2020년대에 자동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경험적 배경을 제공하는 보조자료로 사용한다.

Freedom House의 *Freedom in the World 2026*은 2025년에 세계 자유가 20년 연속 순감소했다고 보고하며, 54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적 자유가 악화되고 35개국에서 개선되었다고 밝혔다.³⁵ 이는 1990년대의 민주화 물결이 단선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Freedom House의 ‘Free/Partly Free/Not Free’ 분류는 자유민주주의의 철학적 정당성을 직접 측정하지 않는다.

V-Dem의 *Democracy Report 2026*도 2025년에 다수 국가에서 autocratization이 진행되었다고 보고하고, 민주주의를 electoral, liberal, participatory, deliberative, egalitarian dimensions로 분해한다.³⁶ 이는 후쿠야마의 liberal과 democratic을 분리하는 분석과 방법론적으로 흥미로운 접점을 갖는다.

미국과 관련된 최신 평가는 정치적으로 논쟁적이므로, 본 보고서는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독자적 점수나 예측을 제시하지 않는다. Freedom House와 V-Dem이 2025년 미국의 법치·권력제약·시민적 자유에 대해 하락을 보고했다는 자료기관의 평가를 출처와 함께 서술하고, 이를 후쿠야마의 state capacity와 rule of law 논의와 비교할 뿐이다.³⁷

후쿠야마 자신의 2025-2026년 입장 역시 분석대상이지 본 보고서의 정치적 입장이 아니다. Stanford CDDRL의 2025년 행사와 글에서 그는 관료제의 전문성·자율성, 법치, 민주적 제약을 논했고, 2026년에는 미국 정부의 주택·인프라 수행능력 문제를 state capacity의 관점에서 다뤘다.³⁸

방법론적 결론. 민주주의 후퇴 자료는 “End of History가 틀렸다”는 단일 판정표가 아니다. 그것은 후쿠야마의 초기 방향론에 (1) 비가역성이 없고, (2) 제도적 decay가 실제로 빈번하며, (3) state capacity와 liberal constraints를 별도로 측정해야 한다는 수정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배경증거다.

³⁵Freedom House, “Global Freedom Declined for 20th Consecutive Year in 2025,” March 19, 2026, <https://freedomhouse.org/article/new-report-global-freedom-declined-20th-consecutive-year-2025>.

³⁶Marina Nord et al., *Democracy Report 2026: Unraveling the Democratic Era?* (University of Gothenburg: V-Dem Institute, 2026), <https://www.v-dem.net/publications/democracy-reports/>.

³⁷Freedom House, *Freedom in the World 2026*; V-Dem Institute, *Democracy Report 2026*.

³⁸Stanford CDDRL, “Bureaucratic Autonomy and the Problem of Delegation,” April 2025; Francis Fukuyama, “Why American Governments Can’t Get Things Done,” Feb. 2026.

부록 C. 1차 자료 중심 핵심 서지

후쿠야마 1차 저작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no. 16 (Summer 1989): 3-18. JSTOR 24027184.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Free Press, 1992.

Fukuyama, Francis.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1995.

Fukuyama, Francis. *The Great Disruption: Human Nature and the Reconstitution of Social Order*. New York: Free Press, 1999.

Fukuyama, Francis. *Our Posthuman Future: Consequences of the Biotechnology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02.

Fukuyama, Francis. *State-Building: Governance and World Order in the 21st Century*.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04.

Fukuyama, Francis. *America at the Crossroads: Democracy, Power, and the Neoconservative Legac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6.

Fukuyama, Francis.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From Prehuman Times to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1.

Fukuyama, Francis. “Is There a Proper Sequence in Democratic Transitions?” *Current History* 110, no. 739 (2011): 308–310. DOI: 10.1525/curh.2011.110.739.308.

Fukuyama, Francis. “The Future of History: Can Liberal Democracy Survive the Decline of the Middle Class?” *Foreign Affairs* 91, no. 1 (January/February 2012): 53-61.

Fukuyama, Francis.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The Patterns of History.” *Journal of Democracy* 23, no. 1 (January 2012): 14-26.

Fukuyama, Francis. “What Is Governance?” CGD Working Paper 314.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2013.

Fukuyama, Francis.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From the Industrial Revolution to the Globalization of Democracy*.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4.

Fukuyama, Francis. “America in Decay: The Sources of Political Dysfunction.” *Foreign Affairs* 93, no. 5 (September/October 2014): 5–26.

Fukuyama, Francis. “Why Is Democracy Performing So Poorly?” *Journal of Democracy* 26, no. 1 (January 2015): 11-20.

Fukuyama, Francis. “Reflections on Chinese Governance.” *Journal of Chinese Governance* 1, no. 3 (2016): 379–391. DOI: 10.1080/23812346.2016.1212522.

Fukuyama, Francis. “Trump and American Political Decay.” *Foreign Affairs*, November 9, 2016.

Fukuyama, Francis. *Identity: The Demand for Dignity and the Politics of Resentment*.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Fukuyama, Francis. “Against Identity Politics: The New Tribalism and the Crisis of Democracy.” *Foreign Affairs* 97, no. 5 (2018): 90–114.

Fukuyama, Francis. “Rotten to the Core? How America’s Political Decay Accelerated During the Trump Era.” *Foreign Affairs*, January 18, 2021.

Fukuyama, Francis.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Farrar, Straus and Giroux, 2022.

Bersch, Katherine, and Francis Fukuyama. “Defining Bureaucratic Autonomy.”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6 (2023): 213–232. DOI: 10.1146/annurev-polisci-051921-102914.

Fukuyama, Francis, Chris Dann, and Beatriz Magaloni. “Delivering for Democracy: Why Results Matter.” *Journal of Democracy* 36, no. 2 (April 2025): 5-19.

Fukuyama, Francis. “Why American Governments Can’t Get Things Done.” *Persuasion*, February 18, 2026.

Fukuyama, Francis. *In the Realm of the Last Man: A Memoir*. Scheduled/announced for September 2026; Stanford publication page consulted before release date.

부록 D. 주요 경쟁·비판 문헌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Why Nations Fail: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2012.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The Narrow Corridor: States, Societies, and the Fate of Liberty*. New York: Penguin Press, 2019.

Berlin, Isaiah. "Two Concepts of Liberty." In *Four Essays on Liber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9.

Dahl, Robert A. *Polyarchy: Participation and Opposi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71.

Derrida, Jacques. *Specters of Marx*. New York: Routledge, 1994.

Diamond, Larry. *Ill Winds: Saving Democracy from Russian Rage, Chinese Ambition, and American Complacency*. New York: Penguin, 2019.

Evans, Peter. *Embedded Autonomy: States and Industrial Transform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5.

Hegel, G. W. F. *Phenomenology of Spirit*. Translated by A. V. Mill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8; 2006 ed. with foreword by Francis Fukuyama.

Huntington, Samuel P.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Simon & Schuster, 1996.

Ikenberry, G. John. *Liberal Leviatha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1.

Kagan, Robert. *The Return of History and the End of Dreams*. New York: Knopf, 2008.

Kojève, Alexandre. *Introduction to the Reading of Hegel*.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69.

Linz, Juan J., and Alfred Stepan. *Problems of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6.

Lipset, Seymour Martin.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Doubleday, 1960.

Mann, Michael. *The Sources of Social Pow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multiple volumes.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New York: Norton, 2001/2014.

Moore, Barrington, Jr. *Social Origins of Dictatorship and Democracy*. Boston: Beacon Press, 1966.

Nietzsche, Friedrich. *Thus Spoke Zarathustra*. Translated by R. J. Hollingdale. London: Penguin Classics, 1961.

North, Douglass C.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O'Neill, John. "Hegel against Fukuyama: Associations, Markets and Recognition." *Politics* 17, no. 3 (1997): 191-196.

Plato. *Republic*. Translated by G. M. A. Grube; revised by C. D. C. Reeve. Indianapolis: Hackett, 1992.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1999.

Tilly, Charles.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Oxford: Blackwell, 1992.

Tocqueville, Alexis de. *Democracy in America*. Translated by Harvey C. Mansfield and Delba Winthrop.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Waltz, Kenneth N. *Theory of International Politics*. Reading, MA: Addison-Wesley, 1979.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 An Outline of Interpretive Sociology*. Edited by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Williams, Robert R. *Hegel's Ethics of Recogni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부록 E. 웹 기반 검증자료와 공식 페이지

- [Stanford - Francis Fukuyama home](#)
- [Stanford FSI - Francis Fukuyama profile](#)
- [Stanford CAP - Curriculum Vitae](#)
- [Stanford - Books and Monographs](#)
- [Stanford - *Origins of Political Order*](#)
- [Stanford -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 [Stanford - *Identity*](#)
- [Stanford -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 [CGD - “What Is Governance?”](#)
- [JSTOR - *The National Interest* No. 16 \(1989\)](#)
- [Yale UP -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 [Yale UP - *America at the Crossroads*](#)
- [Macmillan - *Our Posthuman Future*](#)
- [Journal of Democracy - “China and East Asian Democracy”](#)
- [Journal of Democracy - “Why Is Democracy Performing So Poorly?”](#)
- [Journal of Democracy - “Delivering for Democracy”](#)
- [Freedom House - *Freedom in the World 2026*](#)
- [V-Dem - *Democracy Report 2026*](#)
- [Reuters - “Francis Fukuyama on changing your mind,” Sept. 3, 2026](#)

연구마감 주의. *In the Realm of the Last Man: A Memoir*는 본 보고서 연구마감일(2026-09-06) 기준 Stanford가 2026년 9월 8일 출간 예정작으로 안내한 자료다. 본문은 정식 출간 전 공개된 Stanford 소개와 Reuters 인터뷰만을 사용했다. 정식 출간본의 세부 논지는 후속 판에서 대조 검증할 필요가 있다.

부록 F. 인명·개념·저작 색인

이 색인은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주요 인물, 개념, 사례, 저작의 핵심 논의 위치를 빠르게 찾기 위한 것이다. 한 항목의 모든 등장 페이지를 나열하기보다, 이론적 설명이 집중된 페이지를 중심으로 색인한다.

Cases

China

Contemporary China, 33

Qin and Han, 19

Europe

Denmark, 22

England, 22

France, 22

Spain, 22

India

Dharma, 21

Russia, 32

Ukraine War, 34

United States

Political decay, 25

Trump, 31

Concepts

Accountability, 18

Authoritarian capitalism, 33

Biotechnology, 45

Class struggle, 13

Democratic backsliding, 52

Dignity, 26

Empirical testing, 52

End of History, 10, 57

Eurocentrism, 51

Human nature, 45

Identity politics, 26

Isothymia, 57

Last Man, 14

Liberal internationalism, 35

Liberalism, 27, 59

Lordship and bondage, 12

Megalothymia, 14, 57

Meritocratic bureaucracy, 19

Neoliberalism, 27

Patrimonialism, 24

Political decay, 23, 24, 59

Political development, 23

Populism, 31

Postcolonial criticism, 51

Realism, 34, 35

Recognition, 7, 57

Repatriemonialization, 24

Resentment, 26

Rule of Law, 18, 21

Social capital, 46

State, 18

State capacity, 17, 59

Thymos, 7, 57

Trust, 46

Universal and homogeneous state, 12

Universal History, 10, 57

Vetocracy, 25, 59

Institutions

RAND Corporation, 5

U.S. State Department, 5

People

Acemoglu, Daron, 41

Berlin, Isaiah, 65
Bloom, Allan, 5
Dahl, Robert, 38
Derrida, Jacques, 51
Diamond, Larry, 38
Fukuyama, Francis, 5
Habermas, Jürgen, 65
Hegel, G. W. F., 7, 12
Huntington, Samuel P., 5, 36
Kagan, Robert, 51
Kojève, Alexandre, 7, 12
Linz, Juan J., 38
Lipset, Seymour Martin, 38
Mann, Michael, 39
Marx, Karl, 13
Mearsheimer, John J., 35
Nietzsche, Friedrich, 7, 14
North, Douglass C., 39
Plato, 7

Putin, Vladimir, 32
Rawls, John, 65
Robinson, James A., 41
Stepan, Alfred, 38
Tilly, Charles, 39
Trump, Donald, 31
Weber, Max, 39

Works

Identity, 26
Liberalism and Its Discontents, 27
Our Posthuman Future, 45
Political Order and Political Decay, 23
State-Building, 17
The Clash of Civilizations, 36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10
The Narrow Corridor, 41
The Origins of Political Order, 18
Trust, 46
Why Nations Fail, 41

편집 후 최종 결론

후쿠야마의 지적 여정을 한 줄의 시간축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End of History → Trust → Human Nature → State-Building → Political Order → Political Decay → Identity → Liberalism → State Capacity Renewal

이 시간축은 자신의 초기 명제를 폐기하는 과정이 아니라 그 명제가 현실정치에서 작동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계속 추가하는 과정이었다.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정당성의 강력한 이상일 수 있지만, 좋은 국가는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 좋은 국가가 생겨도 영구적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제도가 쇠퇴하면 사람들의 recognition 요구가 다시 좁은 집단정체성과 포퓰리즘으로 재정렬될 수 있다. 자유주의는 따라서 ‘승리한 이념’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국가역량·법치·책임성·시민적 존엄을 조정해야 하는 정치적 실천이 된다.

이 **Final Copyedited Archive & Publication Master Edition**의 최종 판단: 후쿠야마를 가장 생산적으로 읽는 방법은 1989년의 유명한 문장을 맞고 틀림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1989년**의 보편사, **1992년**의 **recognition**, **2004년**의 **state capacity**, **2011–14년**의 **political order/decay**, **2018년**의 **identity**, **2022–26년**의 **liberalism/state capacity**를 하나의 누적적 연구프로그램으로 읽는 것이다.

코리아베스트 · <https://koreabest.org>

The American Newspaper · <https://americannewspaper.org>